

기록학과 교육적 관점

기록향연, 몇 가지 단상

Archival Symposium for Rethinking Archives

이영남(Lee, Young-nam)*

1. 머리말
2. 기록향연 소묘
 - 1) 실험실 풍경
 - 2) 단 하나의 규칙
3. 기록향연의 구성
 - 1) 계열적 구성
 - 2) 기록서사 계열
 - 3) 기록관리 계열
4. 기록향연의 의미
 - 1) 보이지 않는 기록자
 - 2) 아카이브의 교육적 기능
5. 맺음말

*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조교수.

■ 투고일 : 2018년 6월 30일 ■ 최종심사일 : 2018년 7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7월 27일

〈초록〉

기록향연은 인간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찬찬히 기록하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이 기록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 보았다. 한 사람이 생각을 꺼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욕망, 언어, 정서, 감각이 동시에 움직이는 신체적 활동이었다. 철학에서 생각은 논리적이고 인식적인 행위만이 아니다. 생각은 사고, 느낌, 정서, 의지 등을 망라하는 신체적(정신과 육체) 활동이다. 신체에서 어떤 정서적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에 대한 관념이 생긴다. 정서적 변화는 신체의 활동능력을 증가, 감소, 촉진, 저해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철학적 개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사랑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실감나게 몸으로 겪고 그 안에서 다시 사랑을 반복하면서 희노애락을 겪는다. 인생사가 대체로 이러지 않을까.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는 다를 것 같다. 기록향연이 시작되면, 무작정하고는 당신에게 기록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고 했고, 그런 생각을 출처로 삼아 기록하자고 했다. 기록향연은 아직 고유명사이다. 일반명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향연이라는 기록실험의 과정과 의미를 보고한다.

주제어 : 향연, 삶, 인간, 실험, 서사, 공정한 관찰자, 보이지 않는 기록자, 듣기, 시, 트리트먼트, 시소러스, 체험, 경험, 미시적 접근, 기록공동체, 신영복

〈Abstract〉

Archival symposium was a time when men thought thoroughly about what archives were, and to carefully record such thoughts. In the time of archival symposium, I observed the people archiving. To bring out a thought for a man was a physical action that moves his own desire, language, emotion and senses simultaneously. In philosophy thought is not merely a logical and cognitive act. Thought is a physical act that

includes logical thinking, feeling, emotion, will, and on. When there is a emotional change in the body, an idea about that change forms. Emotional change acts as a force that increases, decreases, accelerate and hinder the body's abilities. However, there were no suggestions for philosophical concepts from the start. Love is not taught by someone. At some point without oneself knowing we start love and really experience with our bodies what love is, and in this repeat love and undergo all these emotions. Would not the overall story of life be as such. It is different from building a car in a factory. When the archival symposium starts, we asked you to think about what archives are, and to record with such thoughts as reference. Archival symposium is still a proper noun. With the wish for it to become a general term, I report on the process and meaning of archival experiment that is the archival symposium.

Keywords : symposium, life, human, experiment, narrative, real & impartial observer, invisible archivist, listening, poem, treatment, thesaurus, experiment, micro approach, archival community

1. 머리말

기록이란 무엇인가보다는 인간의 삶에서 기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대형마트 판매직원은 관심의 폭이 계산대를 넘어설 수 없다. 야채와 과일과 고기를 사가는 사람이 그것을 왜 사는지, 그날 저녁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지, 어떻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 식탁이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할 수는 없다. 이것은 판매직원의 인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시스템이라는 구조에 관한 것이다. 반면, 서

로 안면이 있는 소도시의 재래시장이나 대안적 삶을 꿈꾸는 지역의 생협에서 판매대 너머로 관심이 간다. 그것은 서울에서 자식이 온다는 전화를 오후에 받고 서둘러 저녁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 “오늘 저녁에 기록모임이 있어. 그 전부터 기록해보고 싶어 했잖아. 괜찮아. 한번 참여 해봐.” 즉석 제안이 있을 수도 있다. 물건 판매보다는 얘기나 좀 나누자는 식이다. 기록향연을 하면서는 사람들이 모여 얘기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인간적 함의에 주목했다. 아카이브의 출처는 기록이 나오는 곳일 뿐 기록을 받아들이는 곳은 아니다. 주소지는 수신과 발신이 가능한 곳이다. 기록향연의 주소지를 인간에 두려고 했다.

저녁 무렵, 향연(Symposion)에 나타난 소크라테스가 무턱대고 얘기나 좀 나누자고 한다. 무슨 얘지요? 그는 일상적인 주제를 꺼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쉬운 문제라 각자 자신 있게 답을 한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하나씩 논박해나간다. 논박의 끝에 가면 무지가 드러난다.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모래에 쌓은 건물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일순간 허무해진다(플라톤 2012).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청년들과 만나 철학을 논하지만 지식을 가르치는 모습이 아니다. 반면 당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소피스트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상응하는 돈을 받았다. 그들은 사회적 출세에 방점을 찍었다(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리, 수학, 문법 등 사회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쳤다. 논쟁에서 상대를 격파하는 법, 유식하게 말하는 법을 위해 웅변술과 수사학도 가르치면서 청년들을 몰고 다녔다. 그러나 대화편의 소크라테스는 철학적 대화에 몰두할 뿐 뭘 하자는 것인지 모호하다. 철학적 대화지만 전후좌우가 명쾌하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뭘 하자는 것인지 대안적 결과물(products)은 없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너의 꼬락서니를 알라가 아니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

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장영란 2010; 장영란 2011).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을 폴리스에서 사는 존재로 이해했다. 페르시아처럼 전제왕정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은 수치라 여겼다. 폴리스는 모든 사람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지만 페르시아는 오직 한 사람만이 자유로운 곳이라고 생각했다. 폴리스는 인간의 도덕적, 지적, 미적, 사회적, 실제적 삶의 구심점이었다. 폴리스에서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엘레우테리아’로 사는 것이었다. 엘레우테리아는 자유롭게 산다는 뜻보다는 인간됨의 존엄성과 절박함으로 산다는 뜻에 더 어울린다(H.D.F 키토 2008).

누구나 자기 시대에 충실하다. 소크라테스도 폴리스에서 태어나 살면서 가장 폴리스적인 것을 추구했던 철학자였다. 그의 질문은 당신 지금 엘레우테리아로 사는 것이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제초제에 죽어나가는 풀처럼 당신의 아름다운 영혼이 세상의 잘못된 통념과 제도와 폭력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막 살지는 않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소크라테스는 통념이 지배하는 무지를 깨닫자고 했다. 무지에서 출발해 진리로 향해가자고 했지만, 소크라테스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다. 물론 향연에서 자신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엘레우테리아 이미지를 조형하면서 진리를 추구했다. 플라톤의 대화편이라는 기록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록향연은 통념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고, 그 생각을 찬찬히 기록해보자는 것이다. 자기 안에서,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기록이미지를 찾기 위해 한 걸음 더 들어가려고 했다. 이 글에서 이미지는 “기억과 회상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의미적 심상”(조민지 2014, 1)을 소여(the given)로 삼아 “상상과 욕망의 산출로 나올 수 있는 의미적 심상”을 덧붙였다. 기록 이미지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더 필요했다. 기록이미지는 아카이브의 이곳저곳, 그러니까 기록전시를 통해 접할 수도 있으며, 저녁이 들어오는 일상의 어딘가에서 펼쳐질 기록향연(예: 학교 강의실, 공동체의 공부모임, 지역

의 이런저런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아카이브는 어떤 곳일까. 가장 최근에 지어진 대통령 아카이브(세종)에 가면 아카이브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까. 그 곳은 물체로 존재하는 아카이브이다. 제도적 기반 + 기능성 좋은 건축물 + 매체에 수록된 기록물 + 직원과 방문자로 구성된 인구분포를 볼 수 있다. 이런 물체적 아카이브 말고 다른 아카이브를 상상하고 욕망할 수는 없을까. 시간이 지난 후에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아카이브는 없을까. 물체가 아닌 이미지로 존재하는 아카이브도 있을 것 같다. 관계와 공동체에 기반을 두어야 존재할 수 있는 아카이브. 한 눈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얘기를 나누는 곳에서 출현하는 기록. 마치 감기바이러스처럼 사람들 사이를 옮겨 다니며 기록관계를 증식하는 아카이빙(이 글에서 가끔 등장하는 아카이빙은 ‘기록을 기록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썼다). 기록향연은 이미지로 구성되는 아카이브를 추구했다. 생각하고 기록하면서 발견할 각자의 아카이브를 발견해서 벽돌처럼 들고 다니기를 희망했다. 한 걸음 옆으로 걸어가 그런 아카이브가 일상의 삶과 공동체를 인도하는 아카이브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희망했다.

기록향연이 파할 때 낭독하는 시가 있다. “이번에는 이것이 전부인데, 충분치가 못하다. 하지만 이것이 말해주겠지, 우리가 아직 살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기 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보여주려고 벽돌 들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닮았다.”(브레히트의 시 ‘모토’를 일부 고쳐 씀). 지난 몇 해, 기록향연을 열어 기록실험을 했다. 향연마다 기록가설을 세워서는 유효성과 의미를 검증하는 기록실험을 반복했다. 실험결과가 유의미한 추론을 할 수 있을 정도일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진지한 실험이었다는 것과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고 지지를 보내주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은 기록향연이라는 작은 기록실험에 관한 보고서이다. 2장에서는 향연이 진행되었던 과정과 향연의 규칙을 서술한다. 몇 개의 선을 그어 기

록향연의 이미지를 그려본다. 3장에서는 향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서술한다. 4장에서는 향연의 특징과 사회적 의미를 짚는다. 글의 서술방식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논의를 압축시키고 이미지의 감각적 장면을 기록해야 할 때는 은유가 들어간 상징적 서술을 시도했다. 시를 써야 할 때는 시를 썼다. 정서적 역동을 기록하기 위해 감정을 개입시켜야 할 때는 문학적 표현을 쓰려고 했다. 이런 서술방식이 학술논문 관행에는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계절이 달라지면 새들이 바뀌듯이, 기록향연을 기록할 때는 다른 종류의 언어가 필요했기에 기록문체를 바꿨다. 향연체로 향연을 기록했다.

2. 기록향연 소묘

1) 실험실 풍경

어느 해인가, 개를 데리고 동네를 산책하듯이 기록을 데리고 인간의 삶에 들어갔다. 풀장에서 체계적으로 수영법을 배운 후 바다로 가는 것보다는 ‘와 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팀빙 다이빙부터 하고 보는’ 바닷가 아이들의 방식으로 진입했다. 여행계획은 여행지에서 세우는 것 아니겠냐며 무작정 삶으로 들어가 기록과 동행했다. 기록물 수집이 목적은 아니었다. 기록관리 컨설팅이나 아카이브 프로젝트 때문도 아니었다. 기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상적인 강의를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얘기나 좀 하자는 것이었다. 기록이란 무엇인가보다는 당신이 생각하는 기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보다는 인간에 더 관심이 가던 무렵의 일이었다.

얘기나 좀 하자는 단순함에는 보이지 않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었다. 피가 필요한 사람에게 피를 수혈하듯이 기록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록을 피처럼 수혈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었다. 주사기 바늘이 혈관을 파고 들어가

피를 주입하듯이 인간에게 아카이브를 주입할 수 있는 기록주사기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또는 살아 있는 생명체인 바이러스가 스스로 호흡기를 통해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 서식을 하듯이, 사회적 생명체인 기록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증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기록에는 아카이브를 방문한 사람에게 원하는 기록물을 서비스하는 것이나 기록전시를 둘러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 있을 것 같았다.

인간이라는 변수가 있으니 기록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욕망하며 살아가는 고유한 인간에게 기록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그 효과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관리 직을 배치하고 생산단계부터 최종 폐기까지 일련의 기록관리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아카이브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때 기록을 적용하는 대상은 조직이다. 조직은 인간이 일하는 곳이지만 관료제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곳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조직은 감정이 있는 인간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을 위한 기록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직에 어울리는 기록관리가 있다면, 인간에 어울리는 아카이빙도 있을 것이다. 감정을 겪으며 사랑하고 미워하는 개별적인 인간에게 기록을 적용한다는 것이 궁금했다.

전혀 새로운 문제의식은 아닐 것 같다. 구술기록, 소수자 아카이브, 기록 기호론, 수용자를 탐색하는 기록전시 담론, 인간과 기록 프로젝트, 기억발전소 활동, 돌봄을 위한 공동체 아카이브 담론, 치유를 위한 기록관리, 개인 아카이브, 여성 아카이브, 정동이나 인권에 관한 기록담론 등은 인간에게 기록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스펙트럼을 너무 넓게 잡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반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목적의식은 없었다, 논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 같다>. 반론은 정당하다고 본다. 다만, 스펙트럼이 있다면 그 스펙트럼을 가능하게 한 프리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프리즘은 인간과 기록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라 생각한다. 기록프리즘이 빛을 증폭시켜 인간과 기록의 관계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기록스펙트럼을 만들었던 지난 몇 해가 아니었을까 한다. 연극배우가 무대에 등장하면 연극이 시작된다. 인간이 조직과 경합하는 모양새로 기록의 무대에 등장한 장면은 새로운 기록계열이 형성된다는 의미일 것 같다.

전문적인 아카이브를 한다면서 인간을 앞에 내세우고 기록을 뒤로 돌리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본말을 뒤짚을 수는 없다. 본령은 기록이기에 우선은 기록을 다뤄야 한다. 기록관리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든 조직이든 어디에든 적용할 것이 아닌가>. 반론의 목소리가 심적으로나 주변에서나 제기되는 날이 많았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개입하고 감정이 상하면 일이 복잡해지는 것처럼 기록과 인간 사이에 적용이라는 문제가 끼어들면서 사태가 복잡해졌다. 적용의 문제 앞에서는 본령을 달리 잡아야 했다. 몇 년 동안, 다른 계열의 장소에서 다른 계열의 사람들과 다른 계열의 언어와 정서와 감각으로 기록실험을 해보았다. 실험을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다. 그것은 적용의 문제란 이론에서 실제로 나아가는 단계적론 접근이 아닌 다른 시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멀리서보면 실험실의 동물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기록실험을 했다. 대학생, 농부, 도서관 활동가, 공동체 활동가, 사서, 대안학교 학부모, 마을활동가, 생협 사람들, 예술기관 종사자가 실험실에 모였다. 공부하겠다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기록이 무엇인지 알려는 열망과 호기심으로, 기록물 정리나 아카이브 프로젝트라는 목전의 이유 때문에, 학점을 따기 위해서, 제각각의 이유로 동물들이 실험실에 모여 앉았다. 처음 시작할 때만큼은 실험에 동의하는 마음이 있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돈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받지 못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안정성이 이미 검증된 약품을 판매한다. 반면 기록실험은 제조부터 임상시험까지, 그리고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해야 했다. 검증된 약품을 사러왔지만 약국

도 아닌 실험실에 그런 것이 있을 리 없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다. 시간만 낭비되는 위험의 수위가 급속히 높아졌다. 그 모습이 마치 느닷없이 실험실에 잡혀온 가련한 동물들처럼 보였다. 수많은 동물들이 실험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들은 마치 좀비와 같았다. 좀비의 응얼거림을 해독해보면 “여기에는 기록이 없네. 기록이 있는 곳으로 가자.” 이랬던 것 같다.¹⁾

실험자 입장에서는 대학생 실험이 유용했다. 대학제도와 연계되어 있어서 한 학기 동안 실험을 통제할 수 있었다. 다른 곳이라면 엄두를 낼 수 없을 실험적 시도를 권위로 강제할 수 있었다. 대학생들도 동물로 입장했다가 좀비로 대열을 이루며 빠져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폐쇄된 실험실에서 한 학기는 머물러야 했고 매번 점검하는 과제를 수행해야만 했다. 대학생들은 인간들(임상시험 참가자)에 앞서 먼저 몸을 내주는 실험실의 가련한 동물들이었다. 그렇게 동물의 시간이 지났다. 다만, 교사의 윤리적 책임과 의무는 지키려고 노력했다. 실험은 대학의 일반적인 발표수업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기록과정의 절차와 목표, 의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학생들을 대할 때는 친절하고 다정다감했다. 어떤 얘기든 순순히 귀 기울여 들었다. 평등하게,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했다. 교사가 학생에게 인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논박이나 면박 없이 우선은 듣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것을 지키는 방법을 매번 고민했다.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교사의 시간도 그렇게 지났다.

이제부터는 대학생 기록향연을 서술한다.

1) 때에 따라 관찰은 실험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반농반학(半農半學) 기록향연은 이영남. 2012. 공동체 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31: 3-42에 소개되었고, 활동가 기록향연은 박영숙. 2014. 『이용자를 왕처럼 모시진 않겠습니다』(3장). 서울: 알마에 소개되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선하게 보인다. 돌이켜보면 선한 과정도 있었지만 과정도 결과도 흔적 없이 사라진 게 대부분이다.

2) 단 하나의 실험실 규칙

실험실을 통솔하는 단 하나의 규칙이 있었다. <삶을 가져오는 것>. 시작부터 첫 마디가 강의실에 올 때는 삶을 가져오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환자가 질병을 가져와야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을 수 있듯이, 삶을 데려와야 비로소 기록실험이 시작될 수 있었다. 기록이 자신이 살아온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 진도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수업이 끝난 후 칠판을 지울 때 한 학생이 교단으로 걸어왔다. “선생님, 강의 때 하신 말씀에 이의가 있습니다.” 교사와 논쟁하려고 온 것은 아니었다. 변명이고 핑계임을 금방 간파할 수 있었다. 얘기가 좀 나누자는 것이었다. 엄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강의 중에 엄마 얘기를 할 수 없었던 학생은 강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 같다. 교사는 강의 중에 “20살까지 시를 썼다. 그 뒤론 그 시를 살았다”(랭보)를 칠판에 쓰고는 시인은 시를 쓴 다음에는 그 시를 사는 것 같다. 기록하는 사람들도 기록을 하면 그 기록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다. 기록하는 순간부터 기록을 살자. 기록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살자. 기록을 자기 밖의 대상(물체, 유용한 정보)으로 국한시켜 생각하지 말자. 물고기가 사는 물처럼 기록이란 기록자가 사는 세계이다. 이런 가설로 접근해보자고 했었다. 이 말이 학생을 자극했던 것 같다. 학생이 말을 이어갔다. “우리 엄마의 삶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교사가 그 학생의 엄마를 모욕했다고 항의하기 보다는 마음 속 엄마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뜻인 것 같았다.

학생은 늘 엄마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는 언제나 괜찮다고 하지만, 자식을 키우느라 시인으로 살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엄마를 아들은 마음에 무겁게 짊어지고 다녔다. 이제는 자식이 다 컸으니 지금이라도 엄마의 삶을 다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엄마는 왜 몰라주는지 야속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잠시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각자 다른 강의에 가야 했다. 강의실을 걸어 나가면서 기록화 방향을 물었다. 생각

해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마음의 저울은 기울었다. 더 이상 미루지 않았다. 엄마를 기록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를 기록한 것이었고, 엄마와 이들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었다.

소설을 쓰려면 소설을 읽어야 하고 논문을 쓰려면 논문을 읽어야 한다. 삶을 기록하려면 삶을 이야기해야 한다. 문제는 형식과 분위기일 것 같다. 기록향연은 어떤 기록형식과 정서적 분위기가 삶을 기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첫째, 듣기이지 않을까(Listening is an act of archiving). 삶을 기록하려면 강한 어조의 말하기보다는 찬찬한 듣기가 필요했다. 길고양이를 다가오게 하려면 물과 사료가 있어야 한다. 삶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을 터놓고 말을 하려면 귀 기울여 듣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교사의 듣기만으로는 안 된다. 1:1 상담실이라면 그것이 전부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곳에서는 함께 듣기이다. 교사는 이런 시간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꾸준히 확인해주었다. 발표보다 듣는 시간을 더 많이 배정했다. 함께 듣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특히 인상적이었는지, 추가로 궁금한 것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한 사람이 발표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것을 반복했다. 여러 번 빠르게 반복하려면 단순한 형식이 필요했다. 한 바퀴 돌고 나면 십시일반으로 커진 뭔가가 잡혔다. 말하기는 듣기를 위한 시발점이었다. 누군가 기록의 무대에 오르는 것은 메아리가 있는 골짜기에서 기록하는 것이었다. 반향이 없는 말은 기록할 수 없었다. 기록향연은 함께 듣기에서 나오는 정서적 역동이 있어야 가능했다.

〈백년의 고독〉을 쓴 남아메리카의 가브리엘 마르케스는 저널리스트로도 활동했다. 그는 취재차 인터뷰를 가면 녹음을 하지 않았다. 기자수첩에 메모도 하지 않았다. 얘기가 좀 나누자는 식이었다. 인터뷰가 마무리 되면 집에 돌아와 기록했다. 그는 소설가였기 때문이었겠지만 사실보다는 이야기가, 개별적 정보보다는 전체를 관통하는 이미지가 우선이었다. 그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이야기가 잡히면 개별적 정보들을 맥락에 맞게 배치하는 식으

로 기사를 썼다. 그와 인터뷰를 한 사람들은 기사에 흡족했다고 한다(파리리뷰 2014). 마르케스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부를 하는 글을 썼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취재원들은 무엇보다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쓰여진 기사를 읽을 수 있었다. 아마도 마르케스는 취재원과 헤어지지 않고 같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밤새 얘기를 나누며 기록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학생들은 이렇게 하다가는 언제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걱정했다. 그러나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진도는 과제가 나갔다. 기왕이면 마르케스 기록 형식을 권했다. 녹음, 메모 없이 기록현장에 집중하자. 그 다음에는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남길 것은 남기는 기록-작용(작용으로서 기록행위)이 있을 것이다. 기록의 무대에서 만났던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면서 기록하자. 과제는 매주 나갔다. 교사가 강의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강의를 위해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 식이었다.

둘째, 원테이크(one take)로 가보자고 했다. 영화에서 원테이크는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에 끊지 않고 한 번의 컷으로만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원테이크를 삶을 기록하는 현장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과 같이 확장해서 이해했다. 만약 촬영현장을 통제했는데도 개나 고양이가 어슬렁대거나 휴지를 줍는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지나간다면 도중에 촬영은 중단된다. 개를 쫓아내고 리어카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나리오의 원래 장면을 촬영한다. 그러나 생방송이라면 그럴 수 없다. 마치 개와 고양이가 원래부터 그렇게 어슬렁대기라고 했다는 듯이 방송을 내보낸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한 번에 꼭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보았다. 생방송이지 않겠냐고 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정해진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생방송 스타일이 기록 실험에 더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할 때까지 반복하지도 말고,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잡고 있지도 않았다. 매순간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결과는 판단을 유보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단 한 번에 해보는 것이었다. 하나의 시도이므로 원테이크가 중요했다. 믿는 구석은 있었다. “한 자(字)가 잘못될 때는 다음 자(字) 또는 다음다음 자(字)로 결함을 보상합니다. 한 행(行)의 잘못은 다른 행의 배려로, 한 연(聯)의 실수는 다른 연의 구성으로 감쌉니다. 어쩌면 잘못과 실수 누적으로 이루어진, 실패와 보상과 결함과 사과와 노력들이 점철된, 그러기에 더 애착이 가는, 한 쪽의 글을 얻게 됩니다.”(신영복 2007, 119). 삶을 닮은 기록법이 아닐까. 인간을 기록하는 방법도 신영복(1941~2016)의 기록법이 필요했다. 정서법보다는 글자들의 관계체인 텍스트에 주목했다. 글자들의 생산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을 쓰는 인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나오는 텍스트는 다르다. 신영복은 이것을 서도관계론(書道關係論)이라고 했다. 인간과 기록의 관계를 탐색하는 기록향연에도 필요한 기록방식이었다. 학생들에게 말했다. 단숨에 언덕에 오르자.

이상으로 기록향연의 개요를 짚어보았다. 기록순서를 바꿔 인간을 기록 앞에 세웠다. 삶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가려고 했다. 최대한 삶에 밀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관건은 기록을 적절히 배치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3. 기록향연의 구성

1) 계열적 구성

삶이 하나씩 당도했다. 순박한 삶이 왔고 철없는 삶도 왔다. 아픔이 왔고 슬픔도 왔고 기쁨과 환희도 왔다. 그것들은 질서정연하게 오지 않았지만 하나의 질서와 의미를 가지고 떠나야 했다. 삶의 시간은 호수와 같아서 그 안에는 사건, 언어, 감각, 정서, 욕망, 상상, 과거-현재-미래의 인과적 시

간, 그리고 약간의 기록물이 들어 있었다. 기록의 이름으로 마주한 시간이었다. 기록의 원리로 대처하는 것은 자명했다. 기록시간을 조직하기 위해 계열적 구성을 시도했다.

아카이브의 본령은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기록물을 조직하는 데에 있지 않을까. 출처를 잡아주고 분류하고, 정리와 기술이 있고, 시소러스와 카탈로그가 있어야 아카이브를 아카이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기록향연도 그것이 무엇이든 조직해나간다는 단순한 사실에 복무했다. 기록향연이 하나의 컬렉션이라면 그 하위에 시리즈 몇 개를 잡아서 실험했다. 기록관리 계열은 상수였다. 다른 계열은 출현과 퇴장을 반복하면서 가능성이 타진되었다. 이 글에서는 기록서사 계열을 설명한다. 몇 개의 계열이 더 있는데 아직은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언급하긴 힘들 것 같다.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1〉 기록향연의 계열적 구성

계열	과정	목표
기록서사	시 → 무응수 컬렉션 → 기록자를 위한 기술 → 트리트먼트	기록이미지
기록관리	프로포절 → 기록현장 구성 → 컬렉션 구성 → 컬렉션 활용	기록컬렉션

각 계열에 속한 과정은 3장을 펼치면서 하나씩 서술한다. 각 계열의 과정은 4개로 균일한데 그것은 삶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에는 변증법의 정반합보다는 기승전결이 더 어울렸다는 점 때문이다. 기승전결은 이야기 형식이다. 이야기는 삶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좋은 형식이다. 한편, 기승전결은 동북아의 전통적 기록방식이다. “사물의 변화를 읽으려 할 경우 시는 대단히 뛰어난 관점을 시사합니다. 기승전결이라는 시의 전개 구조가 그렇습니다. 먼저 시상을 일으킵니다(起). 다음 그 상황이 일정하게 지속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承). 이러한 양적 축적의 일정한 단계에서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轉).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과정이 총화됩니다(結). 시는 사물의

변화나 사태의 진전을 전형화한 전개 구조입니다. 시는 시간적 변화라는 동태적 과정을 담는 틀이며 리듬이기도 합니다.”(신영복 2015, 35-36). 삶의 시간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인식의 세계에 들어가 기록할 때, 시는 좋은 기록법이다.

문제는 아카이브의 전통적 방법을 다른 방법과 섞어서 의미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가 하는 것이었다. 특히 기록서사 계열에 속한 것들이 그럴 것 같은데, 이것도 기록이 아니겠냐는 말을 하나씩 설명해나갈 것이다. 아카이브에서 구사하는 기록관리 방법론을 염두에 두었지만 그리로 환원시키려 애쓰지는 않았다. 시인들에게 시의 세계가 있다면,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기록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기록의 세계에서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이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기록관리로 환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은 이곳에서 나왔다.

목표에 대해 말한다면, 학생들이 실험실을 떠날 때 기록상자와 웹은 손에 들려 보내고, 심장에는 좋은 기록이미지를 품고 나가게 한다는 것이다. 기록상자와 웹은 기록관리에 속하는 일이니 재론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기록이미지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미지의 기록형식으로 은유와 이야기를 택했다. 기록서사 계열의 기승전결은, 시를 쓰고 무용수를 만나고 기록의 이유를 묻고, 마침내 결론으로 트리트먼트라는 이야기 형식으로 이야기를 완결하면서 기록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이다.

2) 기록서사 계열

(1) 시

책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각자의 삶에서 시작했다. 문제는 삶을 담은 기록형식이었다. 주저하지는 않았다. 인류의 보편적 기록형식인 시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가 현실에는 불필요한 액세서리라는 생각이 있다. 나아

가 등단한 시인만이 시를 창작한다는 생각도 있다. 편견인 것 같다. 몇 년 동안 고등학생들과도 노인들과도 해보았고 이런 저런 상황에서 해보았다. 어떤 경우는 특강을 가서 수업흐름과 전혀 맥락이 닿지 않은 줄 알면서도 시를 썼다. 누구나,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도 그 즉시 10분이면 시를 썼다. 심각한 병을 앓고 진료소를 찾은 사람은 5~10분에 자기의 모든 것(병과 관련된)을 말한다. 배우자나 자식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에만 꽂꽂 싸매두고 있던 것을 순순히 털어놓는다. 어려운 의학용어는 불필요하다. 살고 싶다는 의지와 의사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된다. 비교적 간단하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다음 환자가 들어오기 전, 5~10분에 문장을 완성한다. 그 간의 경험에 따르면, 아카이브에 진료소 같은 절실함이 있을 때 시를 쓰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시를 쓰는 문학시간은 아니었기에 시작법과 시의 의미를 따지고 앉아 있을 계제가 아니었다. ‘시 템플릿’을 만들어 신속하게 시를 써야 했다. 몇 개월은 달려가는 기다란 기록여정에 출발의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첫날 끝내야 한다. 다음은 없다. 첫 시간에 모든 사람이 각자 한 편의 시를 써야 기록이 시작된다.> 이 생각 하나를 가지고 기록하는 시간을 열었다. 학생들은 강의가 시작되는 첫 날은 일종의 예고편을 기대한다. 수업의 목표, 수업계획서, 읽어야 책, 학점처리 기준을 접하면서 한 학기를 가늠한다. 그러나 기록향연의 첫 시간은 그럴 수 없었다. 한 학기 동안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첫 시간이니만큼 기선을 제압해야 했다. 떡살을 잡고 어딘가로 끌고 들어가야 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금부터 시를 쓴다고 선언하고는 시를 쓰라는 지침을 주었다.

지침은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않아야 했으므로 구체적이고 단순해야 했다.

- ① 10분에 쓴다.
- ② 16줄을 쓴다.
- ③ 제목은 “내가 가장 예뻐할 때”이다.
- ④ 16개의 단어를 제시할 것이다. 단어 하나에 문장 하나를 만드는 식으

로 16줄의 시를 쓴다.

혹시 시간을 더 줄 수 없느냐는 말에도 어려우면 서 너 줄만 써도 되는
나는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다. 지침의 요체는 지침에 있는 그대로 지침을
이행하는 것이었다. 보완설명을 위해 예시가 필요하긴 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운동주의 서시가 좋았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밑줄
친 단어를 보여주고 어떤 시인이 물으면 운동주의 서시가 금방 나왔다. 이
렇게 해보자고 했다. 제시하는 단어는 그 한 줄의 핵심이니 그것을 쓰자고
했다. 주어가 ‘나’라는 사실을 명심하자고 했다. 자기가 살아온 시간을 짚어
보면서 가장 예뻐했을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찾아서 한 줄 한 줄 기록하
는 것이었다.

순수 창작은 아니었다. 기록시간에 시는 쓰는 방법은 기록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좋은 시를 찾아내서 다시 쓰는 것이었다. 길고양이를 집으로 데
리고 들어와 씻기고 먹이를 주듯이, 이것은 좋은 시를 자기 삶으로 가져와
서는 자기의 시선과 감성으로 다시 쓰는 방법일 것 같다. 기록향연에서는
일본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1926~2006)의 시 “내가 가장 예뻐했을 때(わたし
が いちばん きれいだった 時)”를 선택했다. 이 시의 원문은 8연 32줄로
구성되어 있다. 시를 다 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
단한 4연만 가져와서 16줄로 제한했다. 추출한 단어는 다음과 같다.

〈표 2〉 시를 쓰는 시소러스

내가 가장 예뻐했을 때	내가 가장 예뻐했을 때	내가 가장 예뻐했을 때	내가 가장 예뻐했을 때
거리	사람들	선물	라디오
생각지도 못한 곳	바다	여자들(또는 남자들)	담배
하늘	몇 부릴 구실	깨끗한 눈빛	이국의 음악

거대한 침묵 속으로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학생들은 기록도구(펜과 노

트)를 들고 각자 자기역사로 들어갔다. 시를 쓰는 장면은 진지했다. “좋은 시를 쓰려고 노력하지 않았지. 시대를 고뇌하다 보니 시가 울려왔지.”(박노해). 시보다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학생들은 자기가 자기다웠던 순간을 고뇌했다. 그러나 짧게 한정지어진 시간이었다. 한 줄에 평균 30 초였다. 노래 두 곡이 끝낼 때쯤, 각자 자기역사에서 걸어 나와 시를 내밀었다. 시 한 편을 소개한다.

〈표 3〉 내가 가장 예뻐할 때(예시1)

내가 가장 예뻐할 때 거리 생각지도 못한 곳 하늘	내가 가장 예뻐할 때 이른 봄의 거리를 기억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난 진분홍의 벚꽃 푸른 하늘 아래에서 몸을 실랑였지
내가 가장 예뻐할 때 사람들 바다 멋 부릴 구실	내가 가장 예뻐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지 푸른 바다 아래에 잠겨 있을 때면 멋 부릴 구실은 필요치 않았지
내가 가장 예뻐할 때 선물 여자들(또는 남자들) 깨끗한 눈빛	내가 가장 예뻐할 때 어떤 선물보다 빛났던 섬을 기억해 서툰 언어로 미소 짓던 여자들의 깨끗한 눈빛을 잊지 못해
내가 가장 예뻐할 때 라디오 담배 이국의 음악	내가 가장 예뻐할 때 라디오 들던 소녀를 기억해 밤새 태워지는 담배 속에서도 이국의 음악은 질어저만 갔지

변형도 가능했다. 맥락에 따라 배치순서와 시제를 바꿀 수 있었고 새로운 단어를 등장시킬 수 있었다. 과거에 없었으면 과거를 상상할 수 있었다. 지금의 욕망이 과거를 바꿀 수 있었다. 지금 쓴다는 현재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았다. 적절히 섞

는 것도 가능했다. 요지는 자신이 가장 예뻐할 때를 찾는 것인데, 거기를 따라 가다보면 변형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지침이었다. 더 이상은 다른 생각을 허용할 수 없었다. 변형을 시도했던 시 한 편을 소개한다.

〈표 4〉 내가 가장 예뻐할 때(예시2)

내가 가장 예뻐할 때 거리 생각지도 못한 곳 하늘	내가 가장 예뻐할 때는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여행을 간 나의 모습이 아닌 학교 가는 거리에서 올라다본 하늘 속 구름을 쳐다보던 나일 것이다
내가 가장 예뻐할 때 사람들 바다 멋 부릴 구실	내가 가장 예뻐할 때는 피지도 못하는 담배를 입에 물고 인상을 찌푸리는 나의 모습이 아닌 집 가는 지하철 속 앉아 듣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이국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박자를 타는 나일 것이다
내가 가장 예뻐할 때 선물 여자들(또는 남자들) 깨끗한 눈빛	내가 가장 예뻐할 때는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멋 부릴 구실을 찾는 나의 모습이 아닌 친한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고를 때 깨끗한 눈빛을 한 나일 것이다
내가 가장 예뻐할 때 라디오 담배 이국의 음악	내가 바라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언제나 푸른 바다와 같이 순수함을 잃지 않는 나의 모습일 것이다

위의 시는 배치순서를 바꿨다. 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다. 평론은 없었다. 다만, 누구나 쓰기로 작정하는 순간, 외부의 강제가 들어오는 순간, 아름다운 시를 썼다는 사실만은 말할 수 있다. 혼자서는 자기에게 집중하기 힘들 때가 있다. 때로는 누가 강제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자력(自力)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았다. 타력(他力)이 진료소의

절실함 같은 절실함을 주기도 했다.

쓴 다음에는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낭랑하게 시를 낭독했다. 둥그렇게 모여 앉을 수 있을 때는 앉은 곳에서 낭독했다. 규칙을 명확히 했다. 어떤 경우든 다른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읽기만 한다. 혹시 읽다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야 할 때도 침묵한 상태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해야 한다. 그 순간에는 모두 그를 지켜보며 기다린다. 누구도 이런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강의도 아니고 논쟁도 아니다. 아나운서가 대본을 있는 그대로 읽듯이 자신이 방금 전에 쓴 시를 자기 호흡으로 낭독하는 것이 지침이었다.

이것은 누가 독자인가 하는 문제였다. 사람은 말을 하면 연속적으로 두 번 듣는다고 한다. 한 번은 몸 안에서 곧장 뇌로 올라가는 소리이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반사된 것을 귀로 듣는 소리이다. 낭독은 전자의 소리에 설명은 후자의 소리에 그 사람을 집중시킨다. 낭독의 순간에는 자기의 호흡을 자기가 느낄 수 있고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알 수 있다. 외부로 향한 목소리는 강의나 논쟁에 필요하다. 시는 낭독이다. 이것은 어떤 시를 썼는지 확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시를 낭독하면서야 자신이 어떤 시를 썼는지 알 수 있다. 쓸 때는 모르는 것이 있다. 낭독하면서 비로소 드러나는 감정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들리지 않았던 것을 들려준다. 낭독하는 순간에는 어디선가 한 줄 한 줄 감정이 나타나 정서적 맥락을 짚는다.

낭독이 끝나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피드백을 했다. 평론은 아니었다. 시보다는 시를 쓰고 낭독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피드백의 요지는 시 뒤에서 배회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피드백을 하는 입장에서는 유인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낭독이 종료되면 구절은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가만히 지켜보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은 즉시 폐기하면서 기억할 것만 남겨두는 것 같았다. 기억해두는 것은 정서적 맥락인 것 같았다. 어떤 특정한 단어에, 낭독하는 표정이나 몸짓에, 목소리의 톤과 절에, 어떤 독특한 분위기에, 음악에 장단을 맞추듯 동조하

면서 들었다. 듣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서적 맥락을 한 겹 더 짜는 효과를 낸다. 피드백은 말로 표현된다. 어떻게 들었는지, 어떤 점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는지, 궁금한 것은 무엇인지, 또는 자기 삶의 무엇을 건드렸는지 정도. 낭독한 사람은 가만히 들었다. 피드백 하는 사람의 표정과 몸짓을 읽으면서. 다 들은 낭독자가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쓰기-낭독하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피드백은 기록의 맥락을 만드는 순서였다.

쓰기-낭독-피드백-소회의 기승전결을 반복하면서 시를 기록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었다. 하나가 더 남았다. 종이에 쓴 시는 그 날 모두 수거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훌가분하게 돌아가는 발걸음에 과제를 쥐어 주었다. 집에 가서 다시 써서 공유 공간(www.dropbox.com)에 올리는 것이 과제였다(흔글 같은 워드파일로 작성하거나 펜으로 쓴 뒤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방식).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르케스에게 물어야 할 것 같다. 만약 시를 쓰고 낭독하고 피드백을 하는 자리에서 다른 기록(녹음, 메모)을 등장시켰다면 집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시를 기록하는 시간에 집중할 것은 누가 쓰는가, 누가 낭독하는가이다. 이런 종류의 기록자는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로 등장한다. 이미지를 아카이빙하는 방법은 기록하지 않고 입장감(臨場感, 상황에 몸을 담은 생생한 느낌)을 몸에 넣어가는 것일 것 같다.

시를 쓰는 방식으로 취했던 ‘시소러스 스타일’에 대해 보완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지질학자가 무턱대고 땅을 파는 것은 아니다. 연대측정(Age dating)을 한 후 자기가 봐야 할 연대의 암석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지질탐사를 시작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도 마찬가지이다. 무작정 산을 헤매고 다니지 않는다. 한국전쟁의 역사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굴을 시작한다. 전투에 진 곳은 그 동안 방치가 되었고 기록도 부족해서 발굴이 더 어렵다고 한다. 시를 쓴다는 것은 이력서를 쓰는 것이 아니

다. 좌절과 절망, 인생의 패배로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를 순간을 기억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백지 한 장 주고서 무턱대고 시를 쓰라고 할 수는 없었다. 시소러스 스타일이 필요했다.

아카이브에서 쓰기 이전부터 시소러스는 언어로 분류할 때 필요한 분류 사전이었다. 시소러스는 단어의 뜻을 몰라 찾아보는 사전이 아니라 시물이나 개념을 뭐라고 부르는 줄 모를 때 찾아보는 사전이다. 시소러스 사전은 단어의 뭉치를 주제별로 분류해서 최하위 주제 아래 모인 단어들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해 놓는다. 이것은 읽기를 돕기 위한 사전이 아니라 쓰기를 돕기 위한 사전이다.

이바리기 노리코의 시에서 키워드를 추출할 때 시소러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축구장에 야구선수를 입장시킬 수는 없다. 동일한 유형의 기록자들이 단번에 한 장소에 출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들을 깊숙이 탐색해서 입장시키려면 시소러스 스타일이 유용했다. 아카이브에서 시를 써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필요했던 기록형식은 시소러스 스타일이었다. 아카이브는 아카이브에 보관하는 기록물의 검색을 돕기 위해 시소러스 작업을 한다. 기록-이미지(이미지로서 기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그 검색대상이 기록자와 그의 이미지, 사건, 경험, 기억 등의 추상적 사실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면도 있을 것 같다. 다만 경험적 사실이기에 때문에 시소러스만 있으면 누구라도 쓸 수는 있다. 효과와 기능은 큰 틀에서 보면 같다는 생각이다.

‘아름답다’에는 깨끗하다, 곱다, 고아하다, 가름하다, 아리따다, 청아하다, 찬란하다, 좋다, 우아하다, 요염하다, 예쁘다, 어여쁘다, 훌륭하다, 수려하다, 빼어나다(이상 15개)의 유의어가 있다(안희정 2015). 예뻐했을 때를 제시 받았을 때 학생들은 시소러스로 내면을 탐색하기 시작했을 것 같다. 평소보다 15배의 증폭효과를 가진 강력한 서치나이트가 마음의 이곳저곳을 급하게 탐색하면서 기억과 회상의 시간과 공간에서 사건을 불러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졌던 낭독과 피드백은 쓸 때보다도 더 강력한 서치나이트를 가

동시켰을 것 같다.

하나의 시소러스가 각자의 전혀 다른 시간, 사건을 불렀다. 시소러스는 몇 십 명의 수백 년에 걸친 시간에서 수 백 개의 상황을 집결시켰다. 1:多的 방식이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각자 달랐기 때문에 더 복잡해졌다. 그 때가 언제였는지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10살 때였고, 어떤 사람은 19살 때였다. 그곳이 어디였는지 물으면 어떤 사람은 집이었고 어떤 사람은 학교였다. 그러나 전혀 소란스럽거나 혼란스럽지 않았다. 내가 가장 예뻐할 때라는 하나의 단일한 이미지가 개별적인 상황들을 적절히 통제했기 때문이다. 시를 쓰는 시간이면 꽤 여러 편의 시가 나오지만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오히려 참여자들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는 느낌이 들었다는 말을 했다. 이것을 기록공동체로 분류할 수 있을까.

과제를 내줄 때 눈치 빠른 다람쥐들은 시를 쓴 종이를 제출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다. 눈치 없이 고지식한 거북이들은 순순히 제출했다. 한번 쓰는 것보다는 마르케스 기록법으로 두 번 쓰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사진을 찍지 말라는 지침은 주지 않았다. 공유공간에 올려 지금부터 공동경작을 한다는 의식적 감정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2) 무용수 컬렉션

시에서 만난 존재는 감각할 수 없는 존재이다. 시를 쓰는 시간에 내가 가장 예뻐할 때를 듣고 같이 얘기를 나눈다는 것은, “한 인간의 내부에서 새어나온 가장 따스한 빛을 살갗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소설가 한강이 한 책을 읽고 쓴 서평)이었다. 그러나 각자 살갗의 느낌은 상당한 감각적 느낌이지만 상호간에 그 느낌을 공유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멈췄다. 기록이라면 공유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일기는 혼자 쓰고 혼자 보면서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기록은 그럴 수 없다. 함께 감각한다는 것, 함께 공유한다는 것. 기록

에는 이런 사회적 시발점이 필요했다. 여러 명이 함께 기록향연을 함께 수행하려면 “감각을 통해 지각 가능한 혹은 문자의 대척점으로서 이미지”(조민지 2014, 1)인 감각적 이미지가 출현해야 했다. 아직 문자의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이미지의 세계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았다.

강의실에 똥이 떨어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통해 똥이 있었던 강의실을 공유할 수 있다. 사진을 찍어서 그 순간을 특정할 수 있으며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다. 강의실에 늑대가 한 마리 출현해도 마찬가지이다. 기록향연에도 누군가가 출현해야 했다. 누구를 초대해야 하는 것일까? 시를 쓴 다음에는 무용수를 만났다. 무용수의 출현은 공유할 수 있는 존재의 출현이었다. 그것은 의미적 심상에서 감각적 이미지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다른 존재이면 안 되었을까? 왜 굳이 무용수를 선별해서 초대했을까? 또는 왜 다른 존재들은 입장을 시키지 않고 배제했던 것일까? 어떤 감각이 필요했기에 무용수를 기록향연에 초대했는가 하는 것이다.

무용수는 우리 몸이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물론 무용수만 그런 것은 아닌 줄 알지만 몸짓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무용수의 몸짓을 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한 사진가는 무용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무용수는 열정을 몸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며 “상상의 세계를 창조하고 익숙한 주위 환경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다. 무용수는 “사람들이 느끼지만 무용수처럼 예술적 기교와 기량을 갖추지 못해 몸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조던 매터 2013, 8-9). 무용수를 찬양하던 사진가는 무용수들을 공연장에서 빼내 거리로 나갔다.

무용수들은 춤췄다.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공원의 벤치에서, 지하철 불빛이 저쪽에서 들어오는 플랫폼에서, 기도하는 성당에서, 밤에 술집 앞에서, 여름의 해변가에서, 조용한 주택가에서, 사람들이 가득한 펍에서, 놀이터에서 농구장에서, 무용수들은 춤을 추었다.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그들은 생명을 불어넣

었다. 그들은 술을 마시는 장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다. 무용수들에게도 그것은 특별한 공연이었다. 사진가는 그들이 일상의 활기를 보여줄 것이고 그것은 일상의 특별한 아름다움일 것이고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작품집의 원제목은 *Dancers Among Us*인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춤추는 기록자’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각자의 마음일 수도 있고 서로 관계를 맺는 곳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어떤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무용수의 몸짓이 기록자의 몸짓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과 ‘기록자의 감각적 이미지’로 무용수를 떠올릴 수 있었다.

교재는 무용수들을 기록한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조던 매터 2013)으로 골랐다. 모든 사람이 일시에 보기에 책은 유용한 매체가 아니다. 영화는 좀 다르다. 영화관에서 사람들은 스크린을 함께 보면서도 각자 고독할 수 있다. 기록향연에서도 그런 장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 그것을 공유 공간에 올려서 작업했다. 업로드 할 때는 기존의 맥락을 제거했다. 기존의 분류법을 살려두면 권위가 서고 편견이 생긴다. 이 책은 7개 시리즈로 구성되었고 수록된 사진은 총 158장이다. 기록자(사진가와 편집부)는 자기들의 분류법과 사진기록을 통해 나름의 사회적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했을 것이다. 그것을 제거했다. 처음부터 다시 기록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기록을 조직하는 법에 주안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쓴 시를 토대로 기록에 관한 강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는 좌절의 몫이었다. 거두절미,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다. 지침은 다음과 같았다.

① 지금 당장 웹으로 들어간다. 꼼짝도 하지 말고 무용수 사진 158장을 찬찬히 살펴본다.

② 그 중 가장 인상적인 사진 1장을 선별한다. 여기에 이름을 붙인다. 왜 그것을 선별했는지 쓴다.

③ 그 다음에는 8장의 사진을 선별한다. 하나의 사진이 하나의 시리즈가 된다. 총 8개의 시리즈를 만든다. 시리즈의 이름은 단어나 구, 또는 문장이어야 한다. 또한 상위 컬렉션의 제목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제시한다.

④ 8개의 시리즈마다 4장의 사진을 선별해서 배치한다. 정확히 4장이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배치순서이다. 기승전결의 이야기 형식으로 배치한다.

다소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경쾌한 음악이 흘렀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사진을 넘겼다. 위 아래로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얼마 후, 각자의 무용수 41명을 각자의 분류표에 태워 선을 보였다. 이렇게 ‘무용수 컬렉션’을 만들었다. 한번은 다음과 같은 무용수 컬렉션이 나왔다. 15개의 컬렉션과 각각 8개씩 120개의 시리즈로 구성되었다.

〈표 5〉 무용수 컬렉션

컬렉션	시리즈
균형 있는 인생	일상, 노력, 위험, 사랑, 바쁨, 시간, 여행, 선물
성공	꿈, 준비, 노력, 좌절, 휴식, 조력자, 재시작, 성공
냉정과 열정 사이	일상, 일탈, 향함, 고독, 동화, 전파, 확장, 열정
일상에서의 감정	여유, 조급함, 기대감, 행복, 즐거움, 슬픔, 당황함, 지루함
사랑에 대하여	설렘, 환희, 사랑, 하모니, 열정, 그 어느 날, 그리움, 사랑의 보편성
행복	좋은 즐거움, Yolo, 일, 함께, 자연, 거리, 슬픔, 휴식, 사진기
공감	현실적인 일상의 모습, 타인과 함께 하는 모습, 자아도취, 연인의 사랑하는 모습, 혼자만의 시간, 외로움, 일탈, 휴식
특별한 추억	탱고, 어디에나 있는 사랑, 추억 또는 향수, 예측불가 인생, 억압 받지 않는 삶, 모험 또는 탐험, 진정한 사랑, 직장생활의 고달픔
우연적, 운명적	수레바퀴, 슬픔, 흥겨움, 사건, 다가옴, 이어짐, 저항, 선택
추락(Crash)	죽음을 각오하거나 받아들이는 이미지,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의 사랑에 대한 걱정, 사랑 그리고 그것의 한 형태인 집착,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경치를 즐긴다, 가족을 향한 마음과 사랑, 짝사랑 그리고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 혼자 겪는 현실의 쓸쓸함
정체된 시간	개인, 우리, 주변효과, 분주함, 무모함, 질주, 부조화, 무용수의 발

일상 속의 흐트러짐	반복되는 일상, 의미 없이 빠르게 지나치는 풍경들, 의도치 않은 사건들, 무너진 일상에 찾아온 슬픔, 새로움 목표, 일상의 활력, 즐거움,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
일탈	혼자만의 시간, 누군가와 함께, 자유, 독무대, 우리만의 무대, 특별한 읽기, 또 다른 시선, 너만의 방식
휴식	새로움에 도전하고 즐기세요, 우정을 나누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마세요, 당신의 일상에 활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행 좋아하기, 방랑벽(Wanderlust)	일탈, 만남, 도전, 사랑, 편안함, 혼자만의 시간, 그리움, 어둠과 빛

한 사람씩 기록의 무대에 등장해서 PPT 발표를 했다. 발표 후에는 돌아가며 피드백을 하면서 상당한 얘기를 나눴다. 그것은 기록에 맥락을 붙이는 작업이었다. 컬렉션을 만드는 시간은 짧았던 데 비해 컬렉션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은 길었다. 20대 대학생들이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욕망은 그들의 삶에서 나왔다. 누구는 균형 있는 삶을 갈망했고 또 누구는 성공을 원했다. 감정의 파고를 넘고 있었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그리고 일상을 출렁이게 하는 감정을 파도타면서 적응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또한 사랑하고 싶고 행복에 푹 빠지고 싶은 본원적인 욕구를 그리워했고, 우연히 찾아왔다 뒷걸음쳐 사라진 어떤 사건을 깊은 추억으로 간직했다. 지나쳐간 순간이 아니라 심장에 담은 운명 같은 것이었다.

과거의 추락과 정체된 현재 사이를 오갔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흐트러진 일상에서 일탈을 꿈꿨고 휴식을 취하고도 싶어 했다. 여행을 떠나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방랑이라는 것인데, 방랑/유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를 어떻게 싸돌아 다녔는지(Going around)가 아니다. 여행(travel)은 육체적으로 하는 노동(work)을 뜻하면서도 극심한 고통으로 해석되는 프랑스어 트라바이유(travail)와도 관계가 있다. 위난(peril)은 라틴어로 '여행을 나서면 생기는 위험'을 뜻하는 페리쿨룸(periculum)에서 유래했다. 여행을 떠날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farewell)을 고해야 했다. 페어

(fare)는 고대 영어에서는 두려움(fear)과 관련이 있다(로버트 고든 2014). 여행은 신자유주의 시대 불안정한 직장과 일상에 속해 있는 것 같았다. 여행은 시대의 모순을 담지하고 표현하는 어떤 행위였다.

멀리서보면 아무 생각이 없이 날아다니는 파리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기록과 더불어 삶을 말하는 순간의 학생들은 생각하는 어떤 인격체였다. 누가 뭐래도 자기 나름의 삶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 함부로 말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임을 알고 있었고 우정을 지키는 것의 숭고함을 알고 있었다. 혼자 있고 싶어 하면서도 공동체에 소속된 삶이 올바른 삶인 줄도 알았다. 그 방향으로 최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기록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고유한 인격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고유한 인격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록도 없었을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틈을 가진 기록에서, 인간과 인간이 만날 수 있었다.

무용수 컬렉션의 함의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무용수의 등장이 감각적 이미지의 출현이라면, 무용수 컬렉션의 의미를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했다. 첫째, 기록의 단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사진 한 장을 기록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아카이브에서 다루는 기록이 무엇인지, 기록을 다루는 기본 단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했다. 아카이브는 컬렉션을 만드는 작업장이라는 점을 알아야 했다. 완성차 공장에서는 핸들, 바퀴를 만들지 않고 단지 자동차를 만든다. 공정 라인의 일관된 흐름에서 무엇이 결국 만들어지는 지를 보아야 했다. 컬렉션을 산출하는 완성기록 작업장 이미지로 아카이브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의도였다.

학생들도 그렇고 일상에서 시민들을 만나도 기록의 단위를 문서 단위로 이해한다. 대체로 엑셀파일에 문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기록관리의 출발점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일상의 생각을 아카이브의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아카이브에는 컬렉션이 거주한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했다.

아카이브가 낱장의 개별적 존재가 아닌 컬렉션으로 구성된 집합적 존재를 다룬다는 점을 안다면, 아카이브에서 기록을 조직하는 것이야말로 기록의 본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부터 기록습관을 들여야 한다면 처음부터 컬렉션 만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록자가 마주대하는 상대는 컬렉션이니만큼 모름지기 기록한다는 것은 컬렉션을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아카이브의 생각이어야 할 것 같았다.

둘째, 기록이 본령이 기록조직론이니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컬렉션-시리즈-파일-아이템의 계층구조만 주었다. 나머지는 기록자가 해야 할 몫이었다. 그들은 이리저리 고민하면서 자기 나름의 분류의 원리로 구도를 잡아 나갔다. 그 뒤에는 자기가 작성한 분류표에 흐르는 그 내적 욕망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표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마치 DNA 구조만 동일하지 모든 사람이 고유한 것처럼, 기록에는 내적 구조의 견고함이 필요하다는 것, 그럴수록 고유한 존재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성 앞에서 잠시 멈추고 얘기를 나누었다. 이것은 아카이브의 정의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ICA는 아카이브는 무엇인가(What are archives?)라고 묻고, 그것은 과거를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창을 제공하는 것(Archives provide a direct window on past event)이라고 했다. 그런데 얘기가 진행될수록 꼭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기록물만 놓고 보면, 그리고 기록물이 가득한 아카이브라는 이미지로만 접근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기록자 각자가 해석한 기록을 보면서는 창(window)이라는 은유에 의구심이 들었다. 창에는 투명하게 저쪽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신뢰감이 묻어 있다. 누가 보든 이견 객관적이라는 생각이 상황을 지배한다. 그런데 지금 막 만든 컬렉션을 앞에 두고 실증적인 얘기를 나누면서는 그 다양성을 말하려면 다른 은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사진은 누군가에게는 컬렉션의 위치에 들어갔고, 누군가에게는 시리즈에 들어갔다. 파일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 아예 분류 바깥에 있었다.

사진은 분류표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의미 없이 빠르게 지나치는 풍경이었던 사진이 누군가의 꿈이기도 했으며 누군가에게는 죽음 같은 추락이기도 했다. 기록자마다 기록을 분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달랐다. 그러나 15개의 컬렉션 어느 것이든 기록적 가치가 없는 것은 없었다. 지난 몇 해의 경험이 그랬듯이, 이런 기록향연을 10년 동안 계속 이어간다면 몇 백 개, 몇 천개의 컬렉션이 나올 것이다. 158장의 사진은 변함이 없는데, 그 사진을 분류하는 방법과 이유는 장소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마다 다를 것이다.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역사가 E.H. Carr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며, 역사적 사실은 순수하기보다는 기록자의 마음을 통과하면서 굴절된다고 했다. 이 명제가 역사 시간보다는 기록 시간에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기록을 분류하고 기술하면서 알 수 있었다. 역사가들은 기록이 고정되어 있으며 오직 자신들만이 역사적 해석을 한다는 생각을 한다. 이미 아카이브에서 해석을 넣으며 분류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못한다. 다른 은유가 필요할 것 같았다. 기록을 이해하는 새로운 은유가 하나 더 필요했다. 그것은 프리즘(Prism)이었다. 프리즘은 태양빛을 분산해서 아름다운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인간에게 기록은 프리즘 같아서 여러 개의 스펙트럼을 만드는 것 같다. 아카이브의 역할에 우리 삶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드는 시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다.

(3) 기록자를 기록하는 기술서

아직 묻지 않은 것이 있었다. 이제는 기록하는 이유를 묻는 것이었다. “당신은 왜 기록하는가.” 사소할 수도 있고 거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이유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내재되었던 것일 수도 있고 질문을 받는 순간에 떠오른 즉흥적인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이든 기록의 이유를 짚어야 했다. 그것이 기록자가 가는 길

을 만들 것 같았다.

기록형식에 대해서는 조지 오웰에게 도움을 청했다. “나는 왜 쓰는가.” 조지 오웰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이렇게 물어놓고는 책상에 다리를 켜 채 담배를 물고는 썼다(조지 오웰 2010). 아카이브 방식인 기술서 작성형식을 모방했다. 특히 ISAD(G)의 구조를 참조해서 영역과 기술요소로 재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조지 오웰이 말하지 않은 것을 추가한 것이 있고 일부는 표현을 달리 했다. 그러나 영역을 네 개로 나누는 것은 유지했다. 아래와 같다.

〈표 6〉 기록자를 기록하는 기술서

식별영역	기술요소
순전한 이기심	1-1. 똑똑한 체, 잘난 체 하고 싶어서
	1-2.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싶어서
	1-3. 이후에도 계속 기억되기를 바라기에
	1-4. 그 때 나를 푸대접한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되돌려주려고
	1-5. 그 외, 적어도 나에게는 중요했던 어떤 심오한 동기에 빠져서
미학적 열정	2-1. 세상의 아름다움을 기록하는 그 자체에 심취해서
	2-2. 흠어졌던 기록을 서로 연결하고 정리정돈 할 때의 묘미에 빠져서
	2-3. 어떤 기록이 다른 기록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서 은근히 기쁜 마음에
	2-4. 기록이란 게, 기록한다는 게 참 견고하다는 것에 감탄해서
	2-5. 기록과 혼연일체가 되는 리듬감이 좋아서
	2-6. 이상하게도, 기록할수록 더 넓어지는 여백에 이끌려서
	2-7. 나의 기록체험을 나누고 상대의 기록체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2-8. 그 외, 비실용적인 상황에서 기록하는 게 즐거워서
역사적 충동	3-1.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싶었던 춘추작필이지 않은가
	3-2. 숨겨진 진실을 발견해 이를 기록하려는 충동에 이끌려
	3-3. 중요한 것을 기록해서 후세를 위해 보존하려는 충동으로
	3-4. 역사적 상황에 뛰어들어 그것을 현장에서 기록해 증언하려고
	3-5. 그 외, 역사적 소임을 수행하려고 했던 기록자
정치적 목적	4-1. 어떤 사안을 특정한 방향으로 밀고 가려고
	4-2.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어서
	4-3.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사법적 목적으로
	4-4. 내가 속한 곳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투쟁에 기록자로 참여하려고
	4-5. 그 외, 어떤 정치적 이유로 기록에 참여하고 싶어서 * 정치 :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타인을 데려가려고 하는 힘

지침은 구체적이어야 했다.

① 네 개의 식별영역은 모두 기술해야 한다. 하나도 빠뜨려서도 안 된다. 없다면 지어서라도, 남의 것을 베껴서라도 반드시 채운다.

② 각 식별영역의 기술요소는 다 쓸 필요는 없다. 필요한 기술요소만 선택해서 기술한다.

③ 문장으로 쓴다. 한 단락(6~7줄) 이상의 분량이어야 한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갈 수 없듯이 기술서 밖으로 나가지 말 것, 주어진 기술요소만 가지고 기록의 이유를 말할 것. 이것이 지침의 요지였다. 무용수 컬렉션에서는 기술서 작업을 하지 못했다. 사진에 캡션을 다는 정도였다. 그러나 컬렉션은 체계적인 기술에서 나온다는 것을 체험해야 했다. ISAD(G) 형식을 취한 것은 기술대상이 무엇이든 표준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렇긴 해도 기록향연은 기록물보다 기록자를 먼저 기술해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기록자를 기술하려면 농부가 되어야 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곧장 봄에 수확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경험적 사실로 제시되지 않으면 기록시간에 작성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록현장에 들어가 활동하는 기록경험이 필요했던 이유이다. 기록현장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그것을 가져와 강의실에서 얘기를 나누고, 강의실에서 얘기를 나누며 얻은 영감과 다른 사람의 방법을 배운 후에 다시 기록현장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반복과정에서 서서히 기록의 이유가 자랐다. 그래서 기록자를 위한 기술서는 기록향연이 끝날 때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록자, 기록대상, 기록현장의 독특한 분위기, 기록향연에서 같이 기록하는 학생들 모습이 혼재되었다.

아래의 예시는 왜 기록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성장'이 아니겠느냐는 의문을 품고 작업을 했던 학생의 기술서이다.

(표 7) 기록자를 위한 기술서(예시)

<p>1-5 심오한 동기(다른 누구보다도 나에게 중요)에 빠졌던 기록자 이번에는 나를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내면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 기록하면서 느껴지는 스스로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 변화하는 자신도 마음에 들었다. 21년의 짧은 시간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컸다.</p> <p>2-2 흠어진 기록을 연결하고 정리정돈 할 때의 묘미에 빠졌던 기록자 언니와 엄마와 많이 얘기했다. 차마 기억하지 못했던 순간들의 히든 스토리나 내가 알던 사실과 다른 이면의 스토리들을 나누었다. 연대기로 정리하니 꽤 스스로는 흡족한 이야기 보드가 만들어졌다. 상처 입었던 순간들부터 간의 좌절감이나 자존심이 꺾이던 순간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치유해주는 사람.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 연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공감하기도 이색적인 매력을 느끼기도 했다. 흠어진 기록을 연결하고 정리정돈 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잔여물들의 묘미에 더 빠졌다.</p> <p>3-2 숨겨진 진실을 발견해 이를 기록하려는 충동에 이끌렸던 기록자 기록을 연결하는 중간에 나오는 잔여물들 즉, 숨겨진 진실을 발견해 기록하려는 충동에 이끌렸지만 결과적으로 그러지 않았다. 진실이 숨은 까닭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판단에. 옳았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공유하기 시작하자 으폐했던 당사자가 스스로 진실을 열었고 모두 진실에 귀 기울였다. 결론적으로 충동을 이겨내고 기록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p> <p>4-1 어떤 사안을 특정한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의지로 기록했던 기록자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자 했다. 스스로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지극히 주관적인 방향으로 21년을 평가했고 오로지 나의 만족을 위해 주관적인 사실이 객관적으로도 사실이고자 하게끔 밀고 나가려 했다. 이 점이 어떤 특정한 방향이라고 치부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제출한 과제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해소'의 방향으로 이야기를 매듭지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직 현재진행 중이며 어느 것도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출한 기록에서는 적당한 팩트와 함께 허구를 집어넣어 현실에서 완성되지 못한 스토리를 완성해보고자 했다.</p>

성장기록자는 지침에 따라 4개 영역은 모두 기술했다. 기술요소는 영역별로 하나만 선택했다(대체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장기록자의 기록대상은 자신이었다. 기록하기 이전에는 구체적인 것들을 몰랐다. 그러나 기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록해야 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

했다. 그가 찾고자 했던 무언가는 기록에 있었다. 어렸을 적부터 써온 일기, 어떤 사건에 대해 나는 대화의 시간,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에 직면하는 것. 기록자는 기록상황에 분산 보관되어 있던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록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학생은 새로운 기록(새로운 이야기)을 만들면서 진실을 찾고 관계를 회복하면서 성장의 시간을 향연에서 보냈다.

‘왜’는 어디로부터 만들어지는가? 성장과정, 자신의 관심사, 열정을 쏟는 곳. 이런 사회적 본능으로부터 나올 것 같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힘을 쏟으려고 하는지가 아닐까(사이번 사이 2013, 275-292). 물론 여기에 당대에 요구되는 사회적인 이유가 덧붙여질 것이다.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강렬한 내적 욕구를 만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그래도 각자의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힌다. 그러나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실제로 그런 것인지는 자신이 직접 기록하면서 알게 된다. 이 기록자는 시작할 때 성장에 맥살을 잡혔다. 아마도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이었다면 다른 욕구를 내비쳤을 것 같다. 그러나 기록향연을 만났을 때 우연히 다른 일상적 요인들과 겹치면서 성장의 욕구를 만났을 것이다. 기록향연을 하면서 내버려두고 가만히 지켜보면 기록자는 성장과정, 관심사, 열정을 기술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기록상대와 다른 사회적 상황과 연결되면서 변형된다. 그래도 여기가 시발점이었다. 기록하는 이유가 구성되는 순서는 그랬다.

기록의 이유가 무엇이다 말하기 전에 그 이유가 나온 곳이 어딘지를 묻는 것이, 아카이브의 원리인 출처로 접근하는 법이지 않을까. 기록의 이유는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상황마다 구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표 없이 물음표로 이어지는 시간은 하나의 질문을 뽑아내기 위한 것이다. 그 질문이 무언가를 창조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아직 묻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직 묻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기록상황을 만들 것이다.”

당신은 왜 기록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고 물었다. 한 학생이 “수업 시간마다 내가 무언가를 계속 창조해내야만 했다. 정해진 틀이 없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향연의 특징을 잡아준 적이 있었다. 그 말이 맞을 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가.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모르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배워야 하지 않은가. 교사로부터 찾지 말자. 자기로부터 찾아야 하고 곁에 앉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찾아야 하지 않은가. 매 시간 이런 태도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고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이니 잘 배우기 바란다. 이런 태도와는 거리가 있었다. 당신은 왜 기록하는가. 혹시 당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은가.

인간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 물음을 던진 후 기록의 관점으로 탐색하고 답해나갈 때(기록해나갈 때) 만나야 하는 상황이 있다. 그것은 “생각과 감정, 삶의 사건들이 연결되고 아이디어와 기질이 뒤섞이는”(엘리너 워크텔 2018, 14) 상황이다. 한 사람의 오리지널한 것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생각이다. 여기에서 만나 기록하기 위해 시를 썼고, 무용수를 만났고, 왜 기록하는지를 물었다. 기록물만 기술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았다. 기록자를 위한 기술도 필요할 것 같다.

기록자를 기술하다보면 따라오는 것이 있다. 하나의 문을 열면 또 다른 문 앞에 서듯이 기록자 기술 다음에는 기록상황이 따라왔다. 기록자를 기술하면서도 기록상황을 기술할 수 있었다. 기록향연은 새로운 기록상황이 도래할 때 새롭게 구성되는 기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주경기의 마지막 주자인 트리트먼트가 이것을 이어갔다.

(4) 트리트먼트(Treatment)

트리트먼트는 영화를 만들 때 쓰는 서사 형식이다. 120분 분량 영화의

시나리오를 써나가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아웃라인(1페이지, 시놉시스) → 트리트먼트(40페이지 정도, 줄거리) → 시나리오(대략 120페이지, 1분에 1페이지. 장면(scene)과 컷이 들어 있고, 대사와 지문이 들어 있는 완성형). 시놉시스와 시나리오는 익숙한 말이다. 그러나 트리트먼트는 영화 서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익숙하지 않다. 약간의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트리트먼트는 관객이 스크린에서 보는 장면 순서 그대로를 소설 형식으로 쓴 스토리이다. 잘 쓰인 트리트먼트는 단편소설을 읽는 느낌이 든다.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 흐름이 잡히고 줄거리도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주요 배역의 캐릭터가 드러나고, 각 캐릭터가 어떤 갈등을 겪으며 어떻게 행동할지가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사건이 명확히 제시되는 장면, 그 장면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대사, 지문은 아직 없다. 필요에 따라 대사와 지문이 일부 들어가기도 하지만 트리트먼트 작성단계에서는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영화제작사는 시나리오 작가와 계약 전에 정교한 트리트먼트를 먼저 요구한다. 영화는 제작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종합예술이다. 이런 이유로 제작사와 투자자는 정교한 트리트먼트를 읽으며 위험 부담도 덜고 영화를 진행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트리트먼트가 영화감이 된다고 판단되면 제작이 결정된다. 이후, 시나리오 작가, 감독, 제작사는 트리트먼트를 공유하면서 제작에 돌입한다. 작가는 트리트먼트를 실제 영화 촬영장에서 쓰일 시나리오로 확장해 써나가고, 감독도 촬영준비를 시작한다(캐스팅, 촬영장소 물색 등).

기록향연의 기록서사 계열에는 서사형식이 필요했다. 여러 번의 시도를 하면서 소설의 서사형식보다는 영화나 드라마의 서사형식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화제작은 집단작업이다. 소설은 소설가마다 자기 개성과 스타일에 따라 각자 쓴다. 소설을 쓰는 데 사회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다. 소설의 쓰는 과정은 철저히 개인적인 차원이다. 그 사람만의 문제이다.

그러나 영화는 집단적인 제작과정에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 되면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갈등이 시작된다. 이런 상황을 소설처럼 개인에게 맡겨둘 수 없다. 집단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작업하려면 일정한 형식으로 작업과정을 통제해야 한다. 트리트먼트나 시나리오는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 트리트먼트의 이런 기능(이야기 + 작업과정 통제)이 기록향연에 필요했다.

기록향연은 삶을 기록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픽션(서사)이 가미된 형식이 삶의 기록하는 데에 유용했다. 한 학생이 제출한 트리트먼트 후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이번에 트리트먼트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솔직함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절망감을 과장되게 표현하긴 했으나 실제로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픽션 형식이지만 담긴 감정은 논픽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과 트리트먼트가 만나는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다.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픽션 형식이 아니고서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과 감정을 함께 수록하려면 픽션(서사형식)이 필요하다. 트리트먼트 형식은 진실하게 기록하려는 시도를 담을 수 있었다. 트리트먼트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서사형식이지만 아카이브로 가져와서 기록할 때도 괜찮은 것 같다.

학생들에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찍듯이 기록해보자고 했다. 그러나 영화와 기록은 다른 영역이라는 반론도 있었다. 첫 시간에 학생들은 기선을 제압당한 채 군말 없이 시를 써야 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무용수를 만나 분류를 했었고, 조지 오웰을 만나 기록의 이유를 말할 수 있었다. 점차 시간은 통념으로 접근하면서 기록다워졌다. 이런 흐름에서 트리트먼트의 등장은 반전 같은 것이었다. “트리트먼트라는 기록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트리트먼트는 등장인물부터 시작하여 이야기의 모든 구성을 내가 하고 내가 이야기를 써 나간다. 이것이 기록이 맞는가 싶었다. 그냥 기록이 아니라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닌가?”(한 학생의 트리트먼트 후기). 트리트먼트 자체에 대한 시비보다는 트리트먼트를

분류하고 배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스토리텔링을 배우는 콘텐츠 시간이었다면 분류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을 것 같다. 이야기는 이렇게 쓰는 것인가 보다 하는 심정으로 의문 없이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통념에 비추어 기록을 판단하자 트리트먼트는 기록이 아닌데 왜 기록시간에 이런 것을 써야 하나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반면, 눈치를 챈 학생들도 나타났다. “기록향연은 생경한 경험이었다. 첫 시간부터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엔가 감이 잡혔는데 그것은 교수님이 우리를 몰아가며 각자에게 이야기를 부여해주고 싶었다는 점이었다.”(한 학생의 수업평가서). 정확한 지적이었다. 연이어 나타나는 과제의 맥락을 따라가면서 흐름을 파악하기를 내심 바랬는데 거기에 호응한 것 같다. 이야기는 인류의 보편적 기록형식이며 일상적 문화유산이다. 어느 특정 장르의 소유물이 아니다. 다만, 콘텐츠도 문학도 영화도 아닌 기록이라면, 어떻게 트리트먼트에 기록냄새를 풍길까 하는 것이 남았다.

기록의 관점으로 트리트먼트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에 유용했던 것은 분류의 세계였다. 특정한 형태의 분류표, 분류표의 구조가 주는 어떤 신비로움, 분류표의 행간에서 작동하는 욕망,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리즈와 파일, 그리고 정리되어 분류표의 어딘가에 주소지를 받고 배치된 기록물, 헤르메스처럼 돌아다니며 기억과 회상을 촉진하는 감정들,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삶의 사건들, 그리고 사적인 상황을 점차 사회적 상황으로 촉진시켜 주었던 얘기(기록시간에 모여 앉아 나눈). 이것들은 분류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사실 시를 쓸 때도, 무용수를 만날 때도, 기록자를 위한 기술을 할 때도 (뒤이어 설명할 기록관리 계열에서도) 분류의 세계는 일관되게 자락에 깔려 있었다.

이제 트리트먼트의 구체적인 적용방식을 살펴본다. 아카이브는 기록물의 정리와 기술에서 컬렉션/RG 하위에 시리즈를 쓴다. 트리트먼트도 마찬가지로 이다. 트리트먼트는 이야기의 정리와 기술에서 시퀀스(sequence)를 사용한

다. 구조상 트리트먼트가 컬렉션이라면 시퀀스는 시리즈에 해당한다. 소설에서는 시퀀스를 연작소설로 이해한다. 연작소설에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1978), ‘채식주의자’(2007) 등이 있다. 영화에서 시퀀스는 15분 내외의 분량이다. 120분 영화라면 대략 8개 시퀀스가 이야기 흐름에 따라 배치된다. 물론 반드시 8개로 구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8개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아주는 기준 역할을 한다. 이야기에 따라 시퀀스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아카이브의 시리즈는 몇 개로 해야 하는지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기록물과 이야기를 접목하는 데에는 시퀀스 숫자 8개는 좋은 기준점이었다.

아카이브의 시리즈에는 이야기가 들어 있지 않다. 시리즈는 기록물을 정리하고 기술하는 데에는 좋겠으나, 기록을 사건(이야기)으로 정리하고 기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야기는 시리즈에서 거주하기 힘들다. 이 점이 아쉬웠다. 영화 서사를 활용해서 시리즈에 이야기를 넣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이 지점이 트리트먼트가 시퀀스를 데리고 아카이브로 들어와야 하는 게이트 같은 곳이었다. 시퀀스 하위에는 장면(scene)이 있고, 장면은 다시 여러 개의 컷(cut)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는 전체적으로 시리즈-파일-아이템의 구조와 유사하다. 기록향연에서는 이야기 작법을 기술요소로 채택했다. 요약하면, “시퀀스 = 시리즈(기록관리) + 이야기(기록서사)”이다.

학생들에게 지침을 주었다.

① 트리트먼트 형식에 맞춰 글을 쓴다(붙임 1). 이 틀에서 벗어나지 말 것.

② 주인공이 없는 이야기는 없다. 주인공 캐릭터는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정보로 구분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만든다. 진실한 느낌이 없는 글은 주인공이 자기를 숨기기 때문이다. 설령 본존불이 모셔져 있는 곳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일주문 정도까지는 가야 한다.

③ 지금까지 진행한 분류작업이 트리트먼트에 반영되어야 한다. 분류의 세계는 생태적인 세계이다. 고정불변의 세계가 아님은 이미 무용수 컬렉션

에서 배운 바 있다.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분류를 변형해야 한다. 분류는 성장하는 것이다. 분류를 완성된 고정적 실체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것들을 넣어 분류의 세계를 확장하는 데에 과감해야 한다.

트리트먼트를 쓰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원테이크로 해 보라고 했다. 잘하고 못하고를 따질 시간이 없으니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두라고 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형식으로 주어진 기록물과 기억의 범위에서, 새로운 기록형식에 들어가 보라고 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장면들처럼 이야기 안으로 들어갔다. “분류표의 시리즈를 시퀀스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제가 만들었던 아이템들(컬렉션-시리즈-파일-아이템)을 활용해 이야기 소재로 활용했습니다. 첫 시간에 썼던 ‘가장 예뻐할 때’도 활용했습니다. 글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머릿속에 있던 기억들을 마구 찾으며 끄집어냈습니다.”(트리트먼트 작성 후기). 학생들은 분류의 세계에 들어가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또는 이야기의 세계로 기록을 초대했다.

분류는 스스로 변화기 시작했다. 한 학생은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처음에는 오메카(Omeka)를 만들 때 분류표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트리트먼트를 쓰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책장 분류표’가 아니라 ‘책장에 있는 물건의 분류표로 바꾸는 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리트먼트를 작성하면서야 비로소 기록물만 가지고 분류표를 작성했을 때보다 책장 속의 물건들을 더 자세히 살피며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기록을 시작하면서 기록대상에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 트리트먼트를 작성하면서 그 말의 의미가 더 와 닿았습니다.”(트리트먼트 작성 후기).

트리트먼트를 작성하는 과정은 이야기를 쓰는 과정이고 이야기를 쓰는 과정은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이다. 이 과정을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몰디브 추억을 8개의 시리즈(시퀀스)로 담아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

습니다. 분류표와 이야기를 합쳐서 작업하는 과제를 저는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리트먼트를 작성하면서 지난 추억을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땐 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트리트먼트를 쓰는 과정에서 등장인물(몰디브라는 동아리의 멤버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분류표도 변했습니다.”(트리트먼트 작성 후기). 분류표가 변한 것은 다른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다른 생각은 그 상황을 새롭게 이해했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

한 학생은 살면서 받은 모든 편지를 다 모아놓고 있었다. 기록향연이 편지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편지를 시리즈로 구분해서 잘 정리했다. 그 시리즈에는 한 친구와 관련된 편지가 있었다. 열면 덮을 수 없는 편지였다. 아카이빙을 하지 않았다면 펼쳐보지 않았을 것이다. 편지아카이빙을 했던 학생은 트리트먼트를 구성하면서 친구편지 시리즈에서 살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A는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친구입니다. 트리트먼트를 쓰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트리트먼트에 나오는 장면처럼, 친구의 책상에 놓여있던 국화꽃을 보면서 오열했던 날, 혼자 방에서 틀어박혀 엄청나게 많이 울었던 그 순간들이 모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등교하면서 친구의 뒷모습을 보았지만 불려서 같이 가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제가 정말 너무나도 미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들면서 글을 쓰는 내내 울었습니다. 트리트먼트에는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입니다. 아니 편지로라도 보고 싶은 말을 쓴 것입니다.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글을 썼습니다.”(트리트먼트 작성 후기).

편지를 버리지 않았던 것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표시였다. 아카이빙이 기억과 회상을 촉진하고 상상과 욕망을 자극했을 것 같다. 친구를 기억할 수 없었고 회상할 수도 없었다. 보고 싶은 욕망도 다 죽었으며 친구가 잘 지낼 것이라는 상상도 침묵 안에 가두어 두었던 학생이 친구를 기

록하며 이야기에 담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용기를 냈던 것은 아닐까 한다.

트리트먼트를 쪽 따라가면서 기록의 인간적 차원을 볼 수 있었다. 기록물만으로 구성된 컬렉션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이런 차원이, 마치 현미경이 생긴 후 세포와 미생물이 모습을 드러내듯이 이야기가 들어가자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아카이브 기술방법의 관행을 조금만 변형시켜도 기록의 또 다른 차원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인간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단초를 줄 것 같다.

3) 기록관리 계열

(1) 프로포절

누구와 기록할지를 정하는 날이 왔다. 그가 누구인지, 왜 기록하려고 하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하는 날이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듯이 기록상대에게 이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해보자고 했다. 엄마에게 프로포즈를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자취한 6개월, 군대에 있던 2년을 제외하면 21년을 엄마와 같이 지냈다. 그런데 기록학을 공부하면서 엄마는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엄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모르는 것이 많았다. 이번을 계기로 엄마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프로포즈를 들으면서 기록이 엄마와 아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엘리베이터에게 프로포즈를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엘리베이터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매일 매일 접하는 곳입니다. 또 엘리베이터는 타인과 밀폐된 공간에 들어서는 곳이며 일상의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평균 몇 명이나 타는가, 어떤 시간대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가. 사람들의 표정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공통된 패턴이 있는가. 이런 것

이 궁금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용했던 그 평범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순간이었다.

누구를 좋아하는 것은 흠이 되지 않는다. 어떤 사물이나 장소를 탐색하려는 마음도 호기심에 가득 차 있다. 그런 마음을 숨기지 말자는 취지에서, 또는 그런 마음이 기록의 동력이라는 생각에서 기록향연은 프로포절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기록관리에는 민주주의 관념이 필요하다. 기록향연은 애착과 연민을 강조했다. 새를 관찰하는 사람들을 탐조(探鳥, birdwatcher)라고 부른다. 이들은 새를 면밀하게 관찰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애착과 연민이다. 이들을 birder라고 부리기도 하는데, 새가 되어 새를 관찰한다는 정신을 잘 반영한 말인 것 같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의 마음 안에서 그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상대를 만나러 가기 전에 봐야 할 영화가 있었다. 누군가를 관찰하고 기록할 사람은 ‘타인의 삶’(2006년, 독일)을 보았다. 어딘가에 가서 그곳을 관찰하고 기록할 사람은 ‘꿈꾸는 카메라: 사창가에서 태어나’(2004년, 인도, 미국)를 보았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관찰하고 기록할 사람은 ‘윈터풀 라이프’(1999년, 일본)를 보았다. 세 영화의 공통점은 최상의 기록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영화의 정서가 애착과 연민이라는 점에서 기인하지 않을까. 애착과 연민이 있는 관찰은 상대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든다. 세 영화의 또 다른 공통점은 기록자(관찰자)가 기록상대의 삶에 개입해서 인생행로를 바꾼다는 점이다. 평소보다 몇 배의 관심이 생기면서 기록상대의 삶에 일정 정도 개입한다.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교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마치 옆집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견딜 수 없어 자식의 삶에 개입하는 부모와 같다. 참여는 하되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인류학의 방법론보다도 한 걸음 더 들어갔다. 관심이 증폭되고 관찰이 세밀해지고 상황에 관여하면서 형성되는 기

록관계가 있다. 기록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기록할지는 각자의 자유였다. 그 동안 대학생 기록향연에서 만났던 기록상대는 사람, 동물, 장소, 사물,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었다. 사회적 관계는 가족, 연인, 친구, 선후배, 군대동기, 같은 공간(랩, 자취방, 기숙사)을 쓰는 사람들,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선생님, 소수자 등이 있었다. 동물은 반려동물이 많았다. 장소는 대학 내 공간(공원, 엘리베이터, 벤치, 강의동, 광장, 강의실, 도서관 등)이나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일상적 공간이 많았다. 알바를 하는 곳, 동네의 공원이나 시장 등도 있었다. 사물은 필기구, 책상, 책장, 편지, 일기, 다이어리처럼 애착이 가는 사물인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 사건에는 4.16, 5.18, 화성연쇄살인사건 등이 있었다.

(2) 기록현장

기록현장이 생기자 강의실이 텅 비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학우들이 각자의 기록상대를 만나기 위해 강의실 밖을 나섰다. 기록상대가 있는 현장에 직접 들어섰다. 기록현장과 강의실을 오가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를 기록으로 그려냈다.”(한 학생이 제출한 기술서). 무엇이든 기록할 수 있었다. 기록을 가져오는 날이면(그 다음 번 강의)면 강의실은 5일장처럼 붐볐다. 서로 기록을 교환하며 얘기를 나눴다. 시간이 되면 다시 흩어졌다가는 그 다음 시장이 서기를 기다렸다.

소수자를 기록한다며 빅판(빅이슈 잡지를 판매하는 사람)을 찾아 나선 학생도 있었다. 빅판은 자립의지를 가지고 정해진 행동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노숙자이다. 문제는 이 학생이 노숙자, 또는 빅판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도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소수자를 기록하자는 말에 빅판을 떠올렸다는 것이다. 혐로가 예상되는 바였다. 기록하러 나섰지만 기록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

나고, 어울리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빅판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란 정말 쉽지 않았다. 너무 괴로웠고 힘겨웠다. 빅판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거웠다. 겁이 났다. 그럼에도 시도는 해봐야 알지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삶의 한 장을 장식할 수 있을 만큼 도전을 하게 되었다.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난생 처음의 용기를 내었다. 그 용기가 엄청 거창하지 않았더라도 그 용기가 나를 기록자로 만들어주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다.”(한 학생의 트리트먼트). 빅판을 기록하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기 혼자 기록하겠다고 하고서는 갈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었고 점차 기록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 학생은 처음에는 빅판(기록상대)이 자신을 경계하고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빅판은 오히려 기록하러 온 사람을 격려하면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학생은 용기의 문제로 접근했지만, 그렇게 용기를 내는 모습에서 생태적 인간을 볼 수 있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리고 사람과 크고 작은 사건들과의 만남에서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인간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순응하거나 공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인간은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대면하면서 갈등 속으로 걸어가기도 한다. 혼자이기도 하고 여럿이 함께 하기도 한다. 인간은 그렇게 문제와 만나며 그 시간을 학습의 기회,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 이것은 생태적인 욕구이다. 인간은 성장의 계기를 변형, 감속, 가속하면서 창조적이고 질적인 개인 경험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월리엄 글라써 2013, 11). 기록현장에서 한 인간이 변형, 감속, 가속하면서 창조적이고 질적인 경험을 만든다면 그 기록현장에서 기록할 것이 있을 것 같았다(트리트먼트에 답을 경험).

질적인 경험을 다른 말로 폰다면 배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록향연은 교육적 관점을 견지했고 핵심을 성장이라고 보았다. “빅판과 직접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면서 현재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용기를 배웠다. 새

로운 삶을 위해 다시 일어서는 용기,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길로 나아가는 용기를 배웠다. 그렇게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의 자세, 즉, 가치 있는 인생의 순간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느꼈다. 나 역시 이렇게 스스로만의 눈과 마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나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난 시간동안 소수자, 빅판을 기록해왔다 생각했지만, 어쩌면 ‘또 다른 나’에 대해 기록했을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트리트먼트). 성장은 결국 진지한 배움과 자기성찰을 통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록시간도 한 인간의 삶에 성장의 관점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학생들에게 마르케스 기록법을 권했다.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문서를 수거하고, 인터뷰를 하고 다 좋다. 다만, 물체로 담을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다.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씨였지만 빅판과 대화 이후에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길 한복판에서 생판 남이 말을 걸었는데도 거리낌 없이 성심껏 대화를 해주었다는 사실, 그 하나에 너무 감사했다. 이후 버스에 타서는 계속해서 빅판과 대화내용을 떠올렸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ppt를 만들면서 빅판과 대화할 때 그 분위기, 느낌,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정리해 나갔다.”(트리트먼트).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올 때는 그 만남 속의 분위기, 느낌, 생각이 오히려 중요하다. 이것이 기록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까? 기록향연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문제는 어떤 기록형식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기록향연은 상징적, 서사적 형식을 취했다.

기록현장은 기록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다. 그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그 기록현장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준다. 기록현장을 기록대상이 있는 곳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기록대상과 기록자가 맺는 기록관계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3) 컬렉션 구성과 활용

기록화 대상이 무엇이든 기록관리 목표는 컬렉션을 만드는 것이었다. 컬렉션 구성은 수집하고 조직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ISAD(G) 방식에 따랐다. 수집도구는 스마트폰, 수첩, 수집상자(가방, 폴더 포함)를 이용했다. 수집방식은 구술, 사진이 많았다. 기록화 대상과 연관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하고 아카이브를 방문했다. 활용은 오메카(Omeka)를 이용했다. 기록관리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따랐다. 컬렉션 구성과 활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상으로 기록향연의 구성과 전개를 살펴보았다. 서술의 편이를 위해 계열별로 구분해서 서술했지만, 실제 진행은 다음과 같다. 〈시 → 무용수 컬렉션 → 프로젝트 → 기록자를 위한 기술 → 기록현장 구성 → 컬렉션 구성과 활용 → 트리트먼트〉. 시(상징적 은유)로 시작해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다.

4. 기록향연의 의미

1) 보이지 않는 기록자

시를 썼다. 그 후 무용수를 만나고 조지 오웰을 만나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찍었다. 기록시간에 시를 썼던 이유는 어떤 기록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누구의 기록인가를 묻는 것이 처음에 와야 했다. 그것은 기록의 주체성을 세우는 것이었기에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기록하는가 하는 것과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자기 안에서 자기를 공정하게 대하고 관찰하며 대화의 상대방으로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기록향연은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에서 활동하는

기록자가 있을 것이라 보았고 그런 존재를 상상했다(이하 보이지 않는 기록자). 보이지 않는 기록자는 아담 스미스(A. Smith, 1723-1790)가 제시한 ‘공정한 관찰자’에 의지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이 공정한 관찰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정한 관찰자는 우리와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행동이 도덕적인지 확인해주는 공정한 인물이다. 우리는 자신의 어떤 행동이 옳은지 판단해야 할 때 이 인물과 얘기를 나누다.”(러셀 로버츠 2015, 45).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자문자답을 혼잣말로 하곤 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아니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혼자 중얼거리며 자기 행동을 조절한다. 외부의 강제와 무관하게 누구나 자기 안의 공정한 관찰자와 대화를 나누며 살 것이다. 다만, 아담 스미스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존재를 상정하고 역할을 부여했는가 하는 것이 궁금했다. 기록과 연결하려면 이 지점에 대한 탐색이 필요했다.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세계와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것처럼 행동하여 바람직한 시장성과를 낸다는 것이다.”(N.Gregory Mankiw 2013, 14). 보이지 않는 손에는 아담 스미스의 철학이 들어 있다. 모든 개인은 외부의 권위적인 간섭보다는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때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할 경우, 경제학의 목표 중 하나는 시장 참여자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도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는지 탐구하는 데에 있다(N.Gregory Mankiw 2013, 12-16). 보이지 않는 손은 700페이지가 넘는 『국부론』(1776)에서 단 한 번 등장한다. 사회과학 책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적 은유’ 하나가 책 전체를 상징적으로 압축해서 요지를 알려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장을 만든다고 보았다(국가의 개입과 역할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 이전에 철학자였다. 그는 『도덕감정론』(1759)에 서도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듯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도 공정하게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보았다. 이기심과 탐욕을 스스로 절제하려는 태도,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욕구, 자기가 별로 잘날 것이 없다는 겸손함, 배움의 의지, 명예롭고 고상한 것에 대한 열망, 존엄과 위엄에 대한 사랑, 탁월한 인격에 대한 존중, 이웃을 돌보는 감정은 공정한 관찰자가 원하는 바이다. 동감의 원리는 공정한 관찰자의 시각이다. 인간 내면의 윤리적 작용은 동감의 원리에 의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사회질서가 성립되고 유지된다(아담 스미스 2016, 15-24; 러셀 로버츠 2015, 43-59).

공정한 관찰자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며 상상의 존재이다. 그러나 그를 어떻게 부르든 이런 존재가 자기 내부에서, 삶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시선은 정당하고 강력하지 않을까?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아인슈타인). 지식을 쌓는 것보다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 헌법을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헌법은 이전에 존재했던 것을 확인하는 문서가 아니라 정치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정치적 상상력이 작성한 문서이다. 지금 헌법에 있는 것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빵을 먹을 때 보이지 않는 효모도 같이 먹는다. 효모는 5천 년 전부터 빵 속에 들어가 인간의 삶과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빵을 먹을 때 효모를 먹는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효모가 만든 빵을 효모와 함께 먹는다. 효모가 없는 빵을 상상하기는 힘들 것 같다.

공정한 관찰자를 개인의 차원으로만 환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경제학이든 철학이든 인간의 관한 일을 다룬다는 점에서 인간학이다. 아담 스미스는 그의 인간학에서 개인과 공동체를 별개로 보지 않았다. 개인은 공동체에 뿌리를 박고 배태되는 존재이며, 이 때문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에게 정치공동체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형성되었을지 모르지

만 완전한 삶을 위해 존립하는 것이다(아담 스미스 2016, 15-24). 공정한 관찰자는 개인적 존재이면서 공동체적 존재이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고 사는 것처럼 누구나 공동체에 뿌리를 박고 산다. 각자 공정한 관찰자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동체에 속한 존재이기에 소유하는 것이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이런 존재가 굳이 필요가 없다.

〈보이지 않는 기록자〉는 행위의 적정성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존재이다. 적정성의 감각은 그의 감각이며, 상호 동감의 즐거움은 그의 쾌락이다. 공로와 과오, 보상과 처벌을 감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감정과 행위에 관한 판단의 기초 및 의무를 실천한다. 관습과 유행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타인과 더불어 행복한 상태를 추구한다. 보이지 않는 기록자는 감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기에, 상상할 수 있기에 그 존재가 빛난다. 보이지 않는 기록자는 공공연하게, 은밀하게, 한 시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한다. 시를 쓰면서 만날 수 있었던 기록자는 이런 기록자였다. 보이지 않는 기록자는 공정한 관찰자로 출현하면서 기록으로 관여하고 기록관계를 맺어나간다.

인간의 역사에서 기록은 브레히트의 벽돌 같은 것이 아닐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 중의 하나는 기록을 삶의 기반으로 삼으며 진화했다는 점이다.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이나 한반도 울산 반구대의 암각화는 꽤 오래 전부터 기록을 삶의 동반자로 선택했던 인간의 모습이다. 기록은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현상이다. 인간에게 기록은 본질적이다. 몸 안에 DNA가 있어 생명이 유지된다면, 몸 밖에는 기록이라는 문화적 DNA가 있어 우리 삶이 유지된다.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에게 다가서려면, 아마도 인간이 기록을 어떻게 대하고 수용하는지를 살피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5천 년 전 효모가 빵으로 들어왔듯이, 언젠가 개가 인간에게 다가왔듯이, 인간의 마음에도 진화의 어떤 순간에 보이지 않는 기록자가 들어왔을 것 같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질서를 잡듯이, 마음을 가진 자들의 질서는 보이지 않는 기록자가 잡지 않을까.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이지 않는 기록자는 자신과 타인을 바로 보는 것과 올바른 관계의 증식, 그리고 덕성(윤리적, 정치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존재 이유로 삼는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기록자를 보존하고 자기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하게 하려면 다른 사회적 장치의 지원이 필요하다. 시장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듯이, 제도적 개입과 규범적 강제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2절에서 상술한다.

2) 아카이브의 교육적 기능

(1) 경험과 실험적 방법

보이지 않는 기록자를 지켜주고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이 점에 대해 기록향연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삶의 변화는 규범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으로 변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제도의 변화보다는 규범의 변화가 어렵다. 제도적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 개입만으로는 규범의 유지와 변화를 보증하기는 어렵다. 제도는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아카이브의 교육적 기능은 이 지점에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기록향연은 경험의 노선에 따랐고 실험을 기조로 삼았다.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에서 시작한다. 서양철학은 플라톤을 주석하며 발달해 왔다는 논점이 있다. 존 듀이도 교육학에서 이런 위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교육학은 듀이 교육론에 대한 주석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듀이는 교육에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거장으로 다가오는 사람이다. 이 글에서 듀이 교육론에 주목하는 것은 듀이 교육론의 노선(경험과 실험적 방법) 때문이다. 듀이는 경험을 교육의 수단이자 목표로 삼았다. 듀이에게 “경험은 언제나 어떠한 개인이 실지로 생생하게 지니고 있는 살아 있는 경험”이고 교육은 “일상적인 경험에 내재해 있는 가능성을 지적으로 지도하여 개발하

는 일이다.”(엄태동 2001, 131).

듀이는 교육에 실험적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성장 가능성을 실현하거나 경험을 확장하는 데에 있어 과학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 듀이는 매일의 경험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를 알려면 과학적 방법이 유일하다고 믿었다. 그는 과학적 방법이야말로 어제의 경험을 오늘로 확장하고 오늘의 경험을 내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또한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누구라도 자기 바깥의 객관적인 상황에 참여할 때 방법과 조건을 범례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과학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듀이는 자신의 실험 방법론을 다음의 과정으로 정리했다. (아이디어 → 가설 → 행동 → 관찰 → 검증 → 반성). 듀이는 특히 시발점이 되는 아이디어를 중시했다. 과학은 아이디어를 최종 진리로 삼지 않고 하나의 가설로 이해한다. 그래서 과학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면서 실험 가능한 가설로 형성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가설이 형성되면 실험 상황을 설정한 후 행동한다. 행동을 취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생기는데 이를 분별력 있게,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이를 통해 사태의 추이를 따라가며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요약한다. 반성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행위를 되짚어 보면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의미는 운전을 배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이후의 행동을 조절하는 자원이 된다(엄태동 2001).

듀이 교육론을 읽으면서 인간과 교육에 대한 듀이의 생각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듀이 교육론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양쪽 입장에서 배울 수 있는 듀이 교육론을 기록의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듀이 교육론의 노선인 ‘경험과 실험적 방법’을 기록에 초대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었는데, 기록실험을 하려면 그래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듀이 교육론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었다. 기록의 특성과 원리를 섞어서 듀이의 교육적 실험법을 기록실험 방법으로 변용시키려고 노력했다.

기록학은 인간에 관한 학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 충동이다. 아키비스트가 기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발견을 위한 여행’이다.” (랜달 C. 지머슨 2016, 21). 인간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이 인간학이라면, 철학, 의학, 교육학, 역사학, 심리학, 인류학처럼 이웃하는 인간학에서 배울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간과 기록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아카이빙이라면 실험적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 인간의 행동과 실험

한 역사교사의 실험을 소개한다. 1967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 역사교사가 현대사를 강의하면서 히틀러의 집권과정과 2차 세계대전 등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고는 아카이브에서 제공한 기록필름(시청각 교재)으로 홀로코스트 학살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학생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선생님, 나치는 10%에 불과했습니다. 왜 절대 다수 90%의 선량한 독일 시민은 홀로코스트를 막지 않았나요? 심지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시민들도 있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량학살을 몰랐다는 증언까지 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던 역사교사가 제안했다. “얘들아, 우리 한 번 역사실험을 해볼까?”

실험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피실험자(역사수업을 듣는 고2 학생 30명), 실험목표(체험을 통한 역사학습), 실험의도(지도자가 조직을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는지 꺾어보는 것), 실험기간(5일). 실험은 빠르게 전개되었다. 교사는 <상징-훈련-의례-신분>의 장치로 조직을 만들었다. ① 교사는 먼저 파도(조직의 상징)를 칠판에 그렸다. 혼탁한 세상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사명을 가진 조직의 상징적 구심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교사는

전체가 하나의 파도가 되어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드디어 '역사적인 실험'이 시작되었다.

② 상징적 구심점을 잡은 후에는 신체를 규율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반듯한 자세로 앉기, 일어서기, 헤쳐, 모여. 훈련이 반복되었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걸리는 시간이 41초에서 30초로, 다시 16초로 단축되었다. 훈련을 통한, 조직을 통한 힘의 결집을 실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의외로 짧았다. 희열과 환희의 기운이 교실에 넘쳤다. 그러나 교사는 방심하지 않고 바짝 고삐를 죄었다. 이번에는 언어를 규율하는 훈련에 돌입했다. 교사가 지목하면 학생들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자세를 공손하게 한 후 'Sir'를 붙여야 했고 답변은 예, 아니오 스타일의 간결하고 빨라야 했다. 상호간의 대화가 교실에서 급격히 사라졌다. 지시-명령의 일사불란한 언어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③ 대세가 형성되기 시작하자 교사는 조직을 위한 의례를 실행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한, 조직을 통한, 실천을 통한 힘의 결집'이라는 구호를 반복하는 것이었고 파도 경례를 붙이는 것이었다. 학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교장도 교사와 학생들과 경례를 주고받았다. 학교 급식 요리사는 파도 쿠키를 만들어서 간식으로 나눠주었다. 조직의 결속력은 갈수록 견고해졌다. ④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조직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교사의 지시로 물결 문양의 배지를 옷에 부착한 학생들은 모두가 하나 되는 열정과 감격에 사로잡혔다.

이후, 실험은 학교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30명의 파도들은 학교의 이곳저곳에 벽보를 부착했다(선전선동). 1학년부터 파도운동을 조직했다(조직사업). 파도 회원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학교 축구팀의 경기 응원을 불허했다(비회원에게 대한 차별과 배제). 분위기는 급속하게 재편되었다. 실험 3일 만에 회원이 200명으로 급증했다. 결국 체험을 통한 역사학습이라는 실험은 아우슈비츠가 되었다. 파도운동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제로 회유, 협박, 폭행이 자행되었다. 마지막 5일째 되는 날, 교사는 파도회원들(거의 전

교생)을 강당에 모았다. 교사는 이제 우리는 파도운동을 전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학생들을 선동하면서 파도운동 창립자가 곧 모습을 드러낼 테니 주의하라고 했다. 파도들은 극도로 흥분했다. 태풍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거대한 화면에 파도운동의 창립자가 등장했다. 히틀러였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아카이브에서 제공 받은 기록필름에서 보았던 장면이었다.

실험을 끝내야만 했다. 이성을 찾은 학생들은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질문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대신 자신들이 겪은 엄청난 사실 앞에서 부끄러움과 공포감을 느꼈다. 교사도 독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권력에 취해 있었음을 고백했다. 교사는 실험에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역사교사가 아니라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쾌감을 즐겼던 현실의 권력자였다. 그들은 현대사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자신들이 참여했던 실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했다(토드 스트라썬 2017).

그것은 지도자가 조직을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5일의 실험이었다. 역사상의 사건은 현실에서 반복해서 출현할 수 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중등 교과과정에 『파도』를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 들어 있다고 한다. 책을 읽고 토론하며 역사를 반성하고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역사실험을 따라가며 읽는 것은 으스스한 공포와 대면하는 시간이었다. 한국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실험 속 상황과 실험 후 침묵이 낫설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난 10년 동안 조직에 속했던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각자의 침묵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닐까. 부끄러움도 있지만 공포감도 있을 것 같다.

역사실험은 1967년에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다. 1960~70년대 미국에서는 인간이 권위에 복종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심리실험이 사회

심리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밀그램 실험’이나 ‘스탠퍼드 감옥 실험(SPE)’ 같은 유명한 심리실험은 그 실험결과가 공표되었을 때 사회적 파장이 컸다. 밀그램 실험은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각각 나눠 학생이 시험문제를 틀릴 때마다 교사가 체벌로 전기충격을 주는 실험이었다. 전기충격은 15볼트에서 시작해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450볼트까지 높아졌다. 중간에 실험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었지만 참가자의 65%가 지시를 이행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심리학자들조차도 1%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스탠퍼드 감옥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유명한 대학의 재학생들이었다. 이들은 교도관과 재소자의 역할을 각각 나눠 맡았다. 실험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제를 벗어났다.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자행했다. 극심한 공포와 모욕감으로 힘들어하던 재소자들은 두 번째 날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교도관들은 소화기 같은 무기를 이용해서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실험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 통제 불능의 폭력화는 의외로 쉽게 발생했다. 두 실험 모두 끔찍한 일이었다. 심리학자들은 누구도 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에 대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반응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처했을 때는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카이브의 기록을 접하고 교훈을 얻는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없다. 기록실험의 자리는 여기이지 않을까. 실험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 반응하고 대응하면서 적응해 가는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인간이 사회적 적응을 하면서 산다는 사실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도 나온다. 사회가 규범, 제도 등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상황을 만들면 인간은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적응해 살면서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긍정적 정서(pleasant emotion)로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 긍정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인

간의 긍정적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도 많다. 활발하게 진행되는 행복에 관한 실험(서은국 2014), 공동체의 긍정적 분위기를 위한 실험(니컬라스 크리 스타키스, 제임스 파울러 2010)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자원을 어디에 쓰느냐, 관심을 어디에 쏟느냐가 중요하다. 행복실험은 천사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실험이다. 인간에게 권위에 복종하는 계열이 있다면 선함에 복종하는 계열도 있지 않을까. 인간의 선함과 탁월함에 복종하며 희열을 느끼고 향유하는 역동성도 있을 것 같다. 행복실험이 더 많이 열린다면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개선된 날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기록향연은 행복실험 계열에 속한다.

(3) 기록실험과 역사실험 비교

두 실험을 비교해본다. 첫째, 어디에서 실험을 했느냐이다. 역사실험은 아우슈비츠라는 역사상 최악의 사건에 들어가 실험했다. 반면 기록실험은 그 사람의 삶에서 최선이었던 사건에 들어가 실험했다. 최선이 무엇인지 하나로 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아카이브의 전통인 기술적 접근(descriptive approach)을 취해 말해야 할 것 같다. 소크라테스가 향연에서 추구했던 에로스(사랑), 공자가 시경에서 추구했던 사무사(思無邪. 샅된 생각이 없는 마음)이면 어떨까. 소크라테스는 철학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공자는 시 300편이면 사무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는 불교의 자비심은 어떨까. 자비심으로 번역된 메타 카루나(metta karuna)는 동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타인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사회적으로 선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것 같다. 가장 예뻐할 때 시 한 편에 담긴 세계가 이런 세계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인간이 자신에게 최선의 상태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동시에 지금 시점에서 최선의 상태를 욕망하고 상상하면서 시를 썼다는 것은 사실이다.

둘째, 주체를 누구로 설정했느냐이다. 역사실험은 조직이 주체였다. 까불

까불하며 각자 잘난 듯 떠들던 학생들이 조직이 생기자 일사불란한 조직원으로 탈바꿈했다. 그들은 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돌진했다. 각자의 개성과 인격은 사라졌다. 반면, 기록실험은 개인이 주체였다. 기록실험은 '생각과 감정, 삶의 사건들이 연결되고 아이디어와 기질이 뒤섞이는 곳'에서 각자의 오리지널한 경험을 찾으려 했다. 통념에서 벗어나 자신 살아왔던 고유함을 대면했다. 고유한 언어, 정서, 몸짓, 표정 등이 작용하면서 고유한 삶의 사건 하나가 생겼다. 고유함은 타인을 배제하고 부리며 제 잘난 듯 구는 독불장군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조직의 특징에 가깝다. 고유함은 보편적인 인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둔다. 이 공동체적 바탕에서 각자의 고유함을 추구한다. 4장 1절에서 보이지 않은 기록자를 언급할 때 개인이 공동체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고유함은 자기를 이해하는 힘이며 자기를 이해하는 힘은 타인을 배려하는 힘의 원천이다. 반대로 타인을 이해하는 힘은 자기를 배려하는 힘의 원천이다. 두 힘은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한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자신의 고유함을 대면하라는 말이다. 소크라테스의 향연은 철학적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적이다. 그러나 기록실험은 얘기를 나누면서(철학적 대화라면 더 좋겠지만) 아카이브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아카이빙을 하는 시간이다. 아카이빙 방식이 공공기관 아카이빙과 다를 수는 있다.

셋째, 행동 통제의 방법을 무엇으로 했느냐이다. 역사실험은 조직의 권위를 세운 후 권위에 복종하는 방법을 취했다. 감시와 처벌, 권력배분의 보상책으로 조직원의 행동을 규율했다. 반면 기록실험은 각자의 자율에 맡겼다. 과제마다 제출기한이 있지만 제출기한을 넘긴 후에 제출해도 괜찮았다. 각자의 생각과 생활리듬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늦게 낸 학생을 색출해서 처벌하는 감시와 처벌의 기제가 작동되지 않았다. 늦게 제출했다고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 없었다. 다만, 늦게 가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하는 내면의 목소리만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일기를 쓰면서도, 메모를 하면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향연이 인생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려면, 기록을 보면서 자신을 통제하는 것보다는(기록시간이 아니어도 혼자 있을 때 가능) 함께 작업하는 다른 기록자를 보면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것은 중요한 차이라고 알려주었다.

물에 자신을 비추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말이 있다(無鑑於水 鑑於人: 무감어수 감어인). 춘추전국시대 묵자의 말이다. 묵자는 사랑(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을 실천했던 사람이었다. 묵자의 감어인을 되살려 우리 일상에 심어준 사람은 신영복이다. 묵자이든 신영복이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비친 자신을 보라는 것이었다. 기록향연이 감어인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홀로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일, 교사에게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은 과제를 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다. 다만, 기록향연은 같은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두 실험의 차이점을 짚어보았다. 역사실험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기록실험의 의미를 짚는 데에 비교서술이 필요했을 뿐이다. 두 실험은 한 역사교사와 한 기록교사가 각자의 교육적 목적에 의해 수행한 작은 실험이다. 대표성은 없다. 그래도 일종의 ‘증례성’은 있을 것 같다. 교육적으로 중요하고 특수한 환자의 임상사례를 학회, 잡지에 보고하는 것을 의학에서는 증례(證例, case report)라고 한다. 기록향연도 아카이브의 교육적 기능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 하나의 증례가 되기를 바란다.

(4) 기록의 미시적 접근

기록향연의 요지는 좋은 기록을 겪어보는 것이다. 좋은 기록이란 무엇인가를 책이나 강의에서 아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좋은 기록을 위해 설정된 기록상황에 들어가 좋은 기록을 몸으로 겪어보는 것이 요체일 것 같았다. 물론 공동체에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면서 해야 한다. 기왕이면 웹보다는 신체적으로 함께 겪을 수 있는 작은 공동체가 좋을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 시선, 자기 언어, 자기 정서, 자기 리듬으로 기록하는 법을 체득해 좋은 기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카이브 기능 중 하나이면 좋겠다.

좋은 기록에 대해 간단하게 기술한다. 칼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요리를 위한 도구도 되고 살상용 무기도 된다. 칼이 정하지 않고 칼을 잡은 사람이 어떻게 쓸지 정한다는 점에서 칼은 도구성이 거의 전부인 존재이다. 반면 개는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생명체이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개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개에게는 도구적 측면보다는 다른 측면의 비중이 클 것 같다. 기록은 칼보다는 개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인간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는 마음을 살펴야 한다. 인간에게 마음이 없다면, 수치심도 모욕감도 정신적 학대로 인권유린도 성립될 수 없다. 악성댓글 하나에 쓰러지는 일도 없다. 누군가의 말 한 마디가 평생 남아 있을 까닭도 없다. 사랑도 미움도 아픔도 욕망도 생길 수 없다. 나무에게는 없는 것들이다. 인간에게 마음만큼 확고한 것은 없다.

악성 댓글은 그 상대의 인격을 파괴한다. 그러나 댓글은 겨우 몇 개의 문장과 기호이다. 칼이 저절로 움직일 수 없듯이 문장과 기호가 저절로 움직여 상대의 인격을 파괴시킬 수는 없다. 이 물음은 피해를 겪는 사람들은 왜 기록을 자신의 인격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일까 하는 물음이기도 하다. 기록에는 도구로만 존재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을 것 같다. 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피부 아래에서 맹렬하게 온 몸을 돌면서 생명작용을 한다. 기록이 피라는 은유로 접근하면 인간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한량없는 기록-작용을 응시할 수밖에 없다. 기록의 물질성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뭔가가 있다. 인간에게 기록을 떼어 낸다는 것은 심장을 떼어 내는 것과 같다고 사실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징적인 맥락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록에는 사건이 담긴다. 삶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자유롭게 했다면 좋은 기록에 속할 것이다.

기록향연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이런 말을 했다. “트리트먼트를 작성하는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10쪽 트리트먼트를 작성하는 것이 책 10권 읽는 것보다 더 가슴에 와 닿았던 순간이었습니다.”(한 학생이 제출한 트리트먼트 후기). 사실 이 트리트먼트는 좌절을 기록한 트리트먼트이다. 체념과 전망, 쓸쓸함으로 범벅된 미정리 기억을 애써 꺼내 기록했다. 보이지 않는 기록자는 그 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애착과 연민을 발견했다. 애착과 연민이 기록요소가 되면서 체념과 절망과 쓸쓸함은 다른 색감을 보였다. 깊이 따르던 선배와 동기들과 함께 하던 동아리였다. 그런데 선배와의 갈등으로 동아리가 깨지자 어찌할 바 몰라 배회하던 학생은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그 때를 기록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건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아마도 20대로 구성된 모임에서 겪음직한 개별적인 일들이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영어 experience는 체험으로도 번역되고 경험으로도 번역된다. 체험의 체(體)는 몸(누군가가 직접 겪은, 몸으로 부딪쳐 알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경험의 경(經)에는 이야기의 뜻이 들어 있다. 경(經)의 1차적 의미는 낱실이다. 베를 짜는 과정으로 이해해본다. 베를 짤 때는 베틀에 먼저 낱실을 걸어야 한다. 낱실이 걸리면 북이 끝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씨실을 건다. 경(經)에는 글의 뜻도 있다. 경전(經典)은 올바른 기준이 되는 글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성경은 예수의 삶이 낱실이고 예수를 직접 겪은 사람들이 씨실이 되어 만든 이야기이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올바른 기준은 성경에서 나온다. 요컨대, 경험은 텍스트(직물)이며 이야기로 다시 구성한 체험이다. 사람들은 이야기라는 텍스트에 각자 삶의 체험들을 실어 나누며 산다. 좋은 기록은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끼리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록이다.

좋은 기록을 위한 실험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유네스코(UNESCO) 정신이 희망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유네스코는 1945년에 설립되었다. 전 세계가 전쟁을 막 끝났을 때 유네스코가 인류의 삶에 등장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은 말로 설득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므로 평화의 장벽을 세워야 하는 곳도 인간의 마음입니다.” 유네스코가 인류를 위해 하는 일의 요지는 인간의 마음에 평화를 심는 것이다. 물론 평화가 생긴다고 폭력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댐이 물을 막듯이, 평화의 장벽이 세워지면 폭력은 더 이상 흐르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유네스코의 정신이다. 무기를 없애는 것은 마음에 평화의 장벽을 세운 인간이다.

유네스코가 인류를 위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세계기록유산 프로젝트’도 있다. 1992년 보스니아 내전 때 인류의 기록유산을 품은 건축물(도서관)이 파괴되었다. 도저히 발생할 것 같지 않았던 폐허에서 사람들은 그 다음에도 생길 수 있는 폐허를 응시해야 했다. 아름다운 도서관에서 평화롭게 살던 시절이 사라졌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유네스코는 기록을 보존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평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기록프로젝트도 참여하고 있다. 물론 실제 선정된 기록이 과연 평화를 위한 기록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필요할 것 같다. 다만, 평화의 장벽을 세우자는 인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기록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본다.

평화의 장벽을 위한 두 측면을 언급하면서 4장을 정리한다. 유네스코 평화 프로젝트가 거시적 접근의 일환이라면, 이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미시적 접근도 있어야 할 것 같다. 인간은 생각하고, 활동하고, 느끼고, 대응하고, 언어로 말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런 인간에게 내재한 보이지 않는 기록자들이 찬찬히 그것들을 관찰하고 아카이빙 하는 것.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아카이빙 하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힘으로 작용해야 하지 않을까. 기록의 이런 미시적 접근도 필요할 것 같다.

5. 맺음말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장면, 의사가 진료소에서 치료하는 장면, 인류학자가 필드에서 필드워크를 하는 장면, 무용수가 공연장에서 춤추는 장면처럼 아키비스트가 아카이브에서 아카이빙 하는 장면이 있다. 기록물을 사회와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면을 나누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기록향연에서 아카이빙의 한 장면을 짚어보자고 했다.

토끼와 거북이를 마지막 장면에 넣는다.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빠르니 서로 경주했다. 토끼는 한참을 앞서가다가 거북이가 보이지 않자 낮잠을 잤다. 거북이는 땀을 흘리며 꾸준히 걸어서 마침내 자고 있는 토끼를 지나쳐 결승선을 통과했다. 거북이가 승자가 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와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는다. 그러나 기록향연에서는 이솝우화를 다른 독법으로 읽고 이야기를 바꿨다(신영복 2007, 154). 토끼는 빠른 발로 길을 헤쳐 나가 길을 열었다. 거북이는 자고 있는 토끼를 지나치지 않았다. 토끼야 일어나, 거북이는 토끼를 깨워서 같이 가자고 했다. 토끼는 타의 모범으로 기록상황을 이끌어 가고 거북이는 앞서 나가는 토끼를 보고 따라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쓰는 시간에는 문예창작과 토끼가 있었다. 오메카를 활용하는 시간에는 IT 토끼가 등장했다. 막막했던 거북이는 토끼의 기록을 보고서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감을 잡았다. 재빨랐던 토끼는 뒤따라 하는 거북이를 지켜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았다.

찍자고 했던 아카이빙 장면은 기록조직론과 공동체성에 관한 것이었다. 아카이브는 집합기술을 한다. 아카이브의 정수는 기록조직론에 있다는 생각이 컸다. 학생들도 기록향연에서 그 정수를 경험하기를 희망했다. 집합적 사유형식으로 기록을 생각하고 기록해나가는 기록형식이 필요했다. 토끼와 거북이는 인간의 기록형식이었다. 교사로 향연을 진행하면서 아는 것을 일부러 감추거나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는 것 전부를 압축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러다보니 높은 추상으로 올라갔다. 그렇다면 추상에서 구체로 하강해서 쉽게 설명해야 했지만, 실력이 부족했다. 부족한 실력에 일거에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얽힌 데 얽친 격이었다. 날은 어두워지는데 고개는 험했다.

모내기 하는 상황이었다. 기계가 없던 시절에는 혼자서는 자기 논외 모내기도 마칠 수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팀을 이뤄 한 논씩 돌아가면서 모내기를 했다. 모내기를 하는 1~2주의 시간에는 찬찬한 속도감이 있었다. 오늘 내 논 모내기가 끝났으니 이제는 놀아야지. 마지막 날이 내 논 모내기 하는 날이니 그 날만 일해야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 논을 모내기할 때는 더 신경을 쓰면서 더 높은 주체성이 발휘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특이성이 전체적 진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속도감을 높여줄 수 있다. 토끼와 거북이의 기록향연은 마치 모내기의 장면 같았다.

교사는 컬렉션 꼭대기에 앉아 향연이 지향하는 기록이미지를 지시했다. 이번에는 이것을 해야 한다. 이런 정서이면 좋겠다. 언제까지 해야 한다. 그러면 토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1주일 동안 열심히 뛰어서 몇 개의 시리즈를 들고 왔다. 컬렉션 아래에 시리즈가 붙여지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거북이들도 감을 잡기 시작했다. “나는 토끼와 거북이 중에서 거북이었다. 토끼가 올리는 과제를 보고, 아! 이 과제를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많았다.”(한 학생의 수업평가서). 거북이들은 각자 자신이 속할 시리즈 아래에서 느긋하게 파일을 만들었다. 상황에 따라 토끼와 거북이가 바뀌기도 했다. 토끼와 거북이는 협력하면서 기록시간에 적응했다.

토끼는 자신이 토끼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더 토끼가 되려고 했다. “나는 수업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존재(내가 생각하는) 토끼가 되기 위해 열심히 했다. 발표를 할 때의 부끄러움과 쾌감, 그것의 공존은 새로운 짜릿함을 가져다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을 지도 모르겠다. 토끼가 되고 싶어 밤을 새는 일도 잤었다.”(한 학생의 수업평가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

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은 인정 욕구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토끼는 어느 순간엔가 거북이에게 좋은 기록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식을 했다. 자신이 어떤 기록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그 컬렉션(과제)의 기록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토끼가 오른쪽부터 모를 심으면 전체가 오른쪽부터 모를 심었고, 토끼가 타일을 깔듯이 모를 심으면 전체는 타일 깔기 작업을 했다. 그것은 공동체의 일을 한다는 의식이었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윽고 과제의 수신인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교사에게 제출하던 형식이었다. 그러나 토끼와 거북이로 이야기를 살면서 토끼든 거북이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제출하는 형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본다. 삶에 끈덕지게 달라붙었던 고통을 기록한 학생이 있었다. “누구에게나 고민은 있고 누구나 우울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쌓여 더 이상 마음이 괴로워하지 않게 하세요. 저는 해내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한 학생이 제출한 수업과제물). 교사에게 제출하고 교사에게 평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웹의 공유 공간에서 다른 학생들이 수시로 열람할 기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수신인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기록향연은 시작부터 실제적 공동체는 아니었다. 그러나 협력하며 기록하는 기록관계가 형성되자 출현했고, 함께 공유할 기록을 만든다는 자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기록하기 시작하자 하나의 일시적 기록공동체로 출현했다. 실제적 공동체보다는 공동체적 효과가 발생했다.

〈붙임 1〉 트리트먼트 구성

시퀀스	성격	기능(내용)
#1	일상	<p>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갈등의 형성 먼저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고 일상은 어떤지 보여준다. 그러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 주인공은 사건에 휘말린다. (ex.카페에서 다른 사람으로 오인되어 납치된다)</p> <p>주인공의 대응패턴 처음에는, 깨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실패한다. (쉽고 익숙한 기존의 방식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p>
《긴장축 형성》		<p>갈등의 점차적 악화 주인공은 인생에 끼어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상황은 더 복잡해지면서 악화된다. (실패의 연속: 주인공의 노력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p> <p>주인공의 대응패턴 처음에는 익숙한 방식으로, 그러나 실패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고 사태를 조금 파악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필사적으로 해결을 시도, 그러나 역시 실패</p>
#2~#4	갈등	
#5~#7	화해	<p>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다(#5~6) & 마침내 화해한다(#7)</p> <p>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몰린다. 사태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하나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p> <p>주인공의 대응패턴 상황을 직시하고 사태를 대면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자기 스타일로 해결을 시도 어떤 경우든 사태가 진정된다.</p>
《긴장축 해소》		<p>“과거에서 → 현재로 가던 상황”이 비로소 종료됨 진실을 향한 새로운 목표(현재 → 미래) 설정 (미래의 시간, 새로운 상황) 주인공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미래로 향한다.</p>
#8	엔딩	

※참조: D. 하워드, E. 마블리, 1999. 『시나리오 가이드』. 서울: 한겨레출판.

폴 조셉 폴리노, 2009. 『시나리오 시퀀스로 풀어나가』. 서울: 황매.

〈참고문헌〉

- 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3-33.
- 김성도. 2017. 『언어인간학』. 파주: 21세기북스
- 박영숙. 2014. 『이용자를 왕처럼 모시진 않겠습니다』. 서울: 알마.
- 서은국. 2014. 『행복의 기원』. 파주: 21세기북스.
- 안의정. 2015. 『사건과 정보란 무엇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엄태동 편저. 2001.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 서울: 원미사.
- 오명진. 2017. 개인 기록의 특성과 기록화 전략. 『기록학연구』, 53, 79-117.
- 이영남. 2012. 공동체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31, 3-42.
- 이영남. 조민지. 2014. 새로운 기록방법론을 위한 기호론적 접근. 『기록학연구』, 41, 113-173.
- 이혜영. 2013. 『기록조직론』. 서울: 선인.
- 장영란. 2010. 철학의 치유적 논변과 실천적 기능. 『현대유럽철학연구』, 22, 113-139.
- 장영란. 2011. 철학 상담과 철학적 대화법. 『현대유럽철학연구』, 25, 203-234.
- 조민지. 2011. 기억의 재현과 기록 기술담론의 새로운 방향. 『기록학연구』, 27, 89-118.
- 조민지. 2014. 『기록과 기억의 문화정치: 국가기록 전시의 기호학적 접근』. 한국외대 박사논문.
- 최유리. 임진희. 2016. 개인기록 관리 방안 연구: '나의 아카이브(My Archive)'. 『기록학연구』, 47, 5-49.
- 최재희. 2013. 영국의 마이너리티 역사교육과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확대 연구. 『기록학연구』, 36, 121-152.
- 파트리스 파비스(Patrice Pavice), 최준호, 유봉근, 김형기, 이난수. 2012. 『수행성과 매체성: 21세기 인문학의 쟁점』(인문학총서3). 서울: 푸른사상.
- 한동일. 2017. 『라틴어 수업』. 서울: 흐름출판.
- 황임경. 김호연. 2013. 구술사와 서사의학의 만남, 그 시론적 탐색. 『의사학』, 22(2), 357-388.
- Adam Smith. 1896.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printed for Andrew Millar, in the Strand; and Alexander Kincaid and J. Bell, in Edinburgh. (김광수 역. 2016. 『도덕감정론』. 파주: 한길사).
- Bruner, Jerome. 1997. *The Culture of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강현석, 이자현 역. 2014. 『브루너 교육의 문화』. 파주: 교육과학사).
- Cassell, Eric J. 2004.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Goals of Medicine*. Oxford University Press. (강신익 역. 2002. 『고통받는 환자와 인간에게서 멀어진 의사를 위하여』. 서울: 코기토).

- Christakis, Nicholas A., Fowler, James H. 2009. *Connected The Surprising Power of Our Social Networks and How They Shape Our Lives*. Little Brown and Company. (이충효 역. 2010. 『행복은 전염된다』. 파주: 김영사).
- CONNELLY, Michael F. 1988. *Teachers as Curriculum Planners: Narratives of Experience*. Teachers College Press. (강현석 외 역. 2007. 『교사와 교육과정: 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파주: 양서원).
- Eleanor Wachtel. 2003. *Original Mind*. HarperCollins. (허진 역. 2018. 『오리지널 마인드』. 서울: xbooks).
- Gordon, Robert. 2011. *Going Abroad Traveling Like an Anthropologist*. Routledge. (유지연 역. 2014. 『인류학자처럼 여행하기』. 서울: 팬타그램).
- Gulino, Paul Joseph. 2004. *Screenwriting The Sequence Approach*. Continuum Intl Pub Group. (김현정 역. 2009. 『시나리오 시퀀스로 풀어라』. 서울: 황매).
- Hardt, Michael, Negri, Antonio. 2009. *Commonwealth*. Belknap Press. (정남영, 윤영광 역. 2014. 『공통체: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고양: 사월의 책).
- HOWARD, David. 1995. *Tools of Screenwriting: A Writer's Guide to the Craft & the Elements of a Screenplay*. St. Martin's Press. (심산 역. 1999. 『시나리오 가이드』. 서울: 한겨레출판).
- Jimerson, Randall C. 2009.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ScarecrowPres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 2016. 『기록의 힘』.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Johann Amos Comenius. 1657. *Didactica magna*. (정일웅 역. 2015.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의 대교수학: 수정판』. 서울: 나눔사).
- Johann Amos Comenius. 1960. *Johann Amos Comenius Pampaedia Allerziehung*. Quelle & Meyer. (정일웅 역. 2008.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학』. 서울: 그리심).
- Kitto, Humphrey, Kitto, H. D. F. 1991. *The Greeks REISSUED / Paperback*. Penguin Books. (박재욱 역. 2008. 『古代 그리스, 그리스인들』. 서울: 갈라파고스).
- Ludwig, Otto. 2005. *Geschichte des Schreibens Bd. 1, Von der Antike bis zum Buchdruck*. De Gruyter. (이기숙 역. 2013. 『쓰기의 역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Mankiw. 2011. *Principles of Economics*. Cengage Learning. (김경환 외 역. 2013. 『맨큐의 경제학』. 서울: CENAGA Learning).
- Matt Hern. 1996. *Deschooling our lives*. New Society Publishers. (기영화, 김선주 역. 2004. 『학교를 버려라』. 파주: 나무심는사람).
- Meyer, Hilbert. 2004. *Was ist guter Unterricht? Mit didaktischer Landkarte [GER] 11. Auflage*. Cornelsen Vlg Scriptor. (손승남, 정창호 역. 2011.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 서울: 삼우반).

- ORWELL, G. 2003. *Why I Write*. Penguin. (이한중 역. 2010. 『나는 왜 쓰는가』. 서울: 한겨레출판).
- Palmer, Parker J. 2011.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The Courage to Create a Politics Worthy of the Human Spirit*. Jossey-Bass. (김찬호 역. 2012.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파주: 글항아리).
- Parker J. Palmer. 1997. *The Courage to Teach: Exploring the Inner Landscape of a Teacher's Life*. Jossey-Bass. (이종인, 이은정 역. 2008.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서울: 한문화).
- Philip Gourevitch, 2006. *The Paris Review Interviews, Volume I*. Picador USA. (김진아, 권승혁 역. 2014. 『작가란 무엇인가1: 소설가들의 소설가를 인터뷰하다』. 서울: 다룬).
- platon / πλάτων 2002. *apologia sokratous / apologia sokratous*. Pataki. (천병희 역. 2012. 『소크라테스의 변론 / 파이돈 / 크리톤 / 향연』. 파주: 숲).
- Roberts, Russ. 2015. *How Adam Smith Can Change Your Life*. Portfolio. (이현주 역. 2015.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서울: 세계사).
- Shostak, Marjorie. 2000. *Nisa: The Life and Words of a !Kung Woman The Life and Words of a Kung Woman*. Harvard University Press. (유나영 역. 2008. 『니사 Nisa』. 서울: 삼인).
- Sinek, Simon. 2011. *Start with Why How Great Leaders Inspire Everyone to Take Action*. Portfolio. (이영민 역. 2013.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서울: 타임비즈).
- Strasser, Todd, Rhue, Morton, Coffin, Harriet Harvey. 1993. *The Wave*. Laurel Leaf Library. (김재희 역. 2017. 『파도』. 서울: 서연바람).
- William Glasser. 1986. *Control theory pbk*. Harper & Row. (김인자 역. 2013. 『당신의 삶은 누가 통제 하는가』.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